

白文寶研究

—政治家로서의 活躍을 中心으로—

閔 賢 九*

- | | |
|---------------------|-------------------|
| I. 序 言 | 1) 初期의 改革政治에의 參與 |
| II. 家門背景과 師友關係 | 2) 中期의 새로운 改革의 嚮導 |
| III. 整治官으로서의 改革活動 | 3) 末期의 後嗣問題에의 介入 |
| IV. 恭愍王代의 改革政治와의 關係 | V. 結 語 |

I. 序 言

高麗 恭愍王代의 反元運動과 改革政治가 지니는 커다란 意義는 널리 인식되고 있다. 약 80년 간에 걸쳐 元의 駙馬國으로서 政治의 自主性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온 高麗는 劇的인 反元政策의 斷行을 통하여 國權을 회복하고 광범위한 改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轉換期를 맞이하지만, 그것은 결국 朝鮮의 建國으로 향하는 道程이기도 하였다.⁽¹⁾

그러므로, 恭愍王代의 變革은 중요한 만큼 복잡다단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때문에 여러 側面으로부터의 다양한 考察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당시 政治의 重要한 역할을 한 人物들에 대한 檢討는 의미있는 接近方式이 될 수 있는 바⁽²⁾, 本稿에서 白文寶를 살펴보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白文寶(1303~1374)는 高麗末의 儒學者로 알려져 있지만 별로 주목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³⁾ 그는 政治적으로 크게 出世하여 巨物로 浮上되지도 않았고, 커다란 文集을 남기고 있지도 않으며, 後孫이나 弟子들에 의해 높이 顯揚된 바도 없다.⁽⁴⁾ 그러나, 그는 忠穆王代에 整治都監의

* 高麗大, 韓國史專攻

(1)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의 性格」, 『歷史學報』 38, 40, 1968.

(2) 이와 같은 觀點에서 筆者는 李齊賢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바 있다(『益齋 李齊賢의 政治活動——恭愍王代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51, 1981.).

(3) 白文寶에 대하여는 일찍이 李丙燕, 『資料 韓國儒學史草稿』(1959)에서 高麗後期 宋學의 傳來를 叙述하면서 「關異端(斥佛老)」한 그의 儒學者로서의 존재에 言及한 바 있고(p. 95), 그 후 金哲坡 「益齋 李齊賢의 史學」(『東方學志』 8, 1967, 『韓國古代社會研究』, 1975, p. 471.), 李泰鎮 「16세기 川防(狀)灌溉의 발달」(『韓治勛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韓國社會史研究』, 1986, pp. 193~195)과 鄭玉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震檀學報』 51, 1981, pp. 49~50)에서 史學史, 農業技術 및 性理學受容과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論及된 바 있다.

그 밖에 千惠鳳 「淡庵先生逸集」(『國學資料』 37, 1980, pp. 6~9)은 白文寶의 文集인 『淡庵集』에 대한 解題로서 白文寶에 대하여도 많은 說明을 하고 있지만, 그의 行狀에 따른 略傳의 소개를 증상으로 한 것이다.

(4) 여기에서 잠깐 白文寶의 『淡庵集』에 대하여 간단히 言及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前記한 千惠鳳의 解題(p.

整治官으로서 改革活動을 벌였을 뿐 아니라, 恭愍王代에는 始終하여 王의 두터운 信任을 받으면서 政治에 참여하여 큰 영향을 끼쳤다.⁽⁵⁾ 또한 그는 性理學에 대한 깊은 造詣를 갖고 佛敎를 철저하게 배척하였으며, 특히 周易에 입각하여 當代가 一大 變革期임을 강조하면서 檀君紀元說을 내세우기도 하였다.⁽⁶⁾ 요컨대, 白文寶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恭愍王代의 變革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존재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白文寶의 실체를 밝힌다는 것이 本稿의 뜻하는 바이지만,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 留意하려고 한다. 첫째로, 그는 整治都監의 改革運動과 恭愍王代의 改革政治를 연결시켜 주는 政治家라는 점이다. 둘째로 그는 恭愍王代의 政治의 變革의 중요한 背後人物로서 매우 前向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그의 家門과 生平을 살피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검토될 것이다.⁽⁷⁾

II. 家門背景과 師友關係

白文寶⁽⁸⁾는 忠烈王 29년(1303)에 水原 白氏로부터 分派된 大興 白氏 家門에서 태어났다.⁽⁹⁾ 白氏 一門은 高麗初에 盛勢를 누렸으며⁽¹⁰⁾, 武臣執權期에도 知門下省事 白任至와 같은 有力者를

9)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韓末에 활약한 金道和의 後叙와 李晚森(1842~1910)의 跋文에 비추어 보아 1900년대 초기에 上梓된 것으로 여겨지는 木板本으로서, 대개 諸文獻에서 採掇 編輯된 貧弱한 內容의 것이다. 卷之一에 있는 詩 11首 가운데 7首는 『東文選』과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며, 卷之二에 있는 「論時政箴子」라 題한 8篇은 모두 『高麗史』의 各志에 실려 있고, 序 3篇 가운데 1篇, 記 2篇 모두와 說 2篇 모두가 역시 『東文選』에 있는 것들이다. 行狀 1篇이 있는데, 白頤正의 것으로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글이며, 碑銘 1篇은 洪參博의 神道碑銘이지만 序頭만 있고 대부분이 缺落되었다. 卷之三은 附錄으로 七代孫인 白見龍이 撰한 行狀과 編年이라 題한 年譜 등 그의 傳記資料들로 메워져 있다. 이상과 같이 『淡庵集』(정식 名稱은 『淡庵先生逸集』임)은 白文寶의 死後 近 550년만에 편찬되어 內容이 빈약하고 根本史料로서의 性格이 미약하지만, 그를 研究하는 데에는 물론 가장 기본적 資料가 된다. 白文寶의 所作은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및 『陶庵集』에서 數篇을 더 찾을 수 있지만, 文名이 높고 저지 않은 所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文集이 제대로 편찬되지 못했던 事情이 수수께끼라 하겠다.

(5) 이 점은 筆者가 간단히 言及한 바 있다(『整治都監의 性格』, 『東方學志』 23-24, 1980, pp. 128~136).

(6) 高麗後期에 檀君紀元說의 發說은 一然으로부터 시작하여 李承休를 거쳐 세번째로 白文寶에 의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7) 筆者는 白文寶의 政治思想과 改革論에 대하여는 別稿에서 檢討하려고 한다.

(8) 白文寶의 傳記資料로서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은 『淡庵集』 卷3, 附錄에 있는 그의 行狀과 編年 및 『高麗史』 卷112, 白文寶傳이다. 行狀은 그의 七代孫이 撰한 것으로 內容이 詳細하고, 編年이라 稱한 年譜도 중요한 內容을 알려 주지만, 때때로 年代上의 錯誤가 나타나고, 行狀과 編년이 不합되지 않는 경우도 보인다. 이것은 이 資料들이 後代에 작성된 데 起因하는 바로서, 그 利用에는 면밀한 檢討가 요청된다.

(9) 『淡庵集』 附錄에 있는 白文寶의 行狀(以下 行狀으로 略稱함)에 「白氏本水原大姓 勝國時移貫大興」이라 하였고, 『萬姓大同譜』(下)에는 그가 大興 白氏의 始祖로 되어 있다. 그러나, 『高麗史』, 白文寶傳에는 「稷山縣人」으로 나타나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卷16, 稷山縣의 人物條에 白文寶가 실려 있다. 이처럼 白文寶의 本貫에는 大興과 稷山の 두가지 說이 있는 셈인데, 前者의 大興說을 취하는 까닭은, 첫째로 行狀은 白文寶의 七代孫이기는 하지만, 後孫이 직접 撰한 것으로 朝鮮初에 그 一門이 大興 白氏로 行世하였음이 확실하고, 둘째로 高麗 武臣執權期의 人物인 白任至의 墓誌에 「公諱任至 姓白氏 大興郡人」(『朝鮮金石總覽』(上) p. 414)이라 하여 高麗 中葉에 大興 白氏가 實在했음이 분명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인데, 『萬姓大同譜』에서 그를 大興 白氏로 파악한 것은 옳지만, 그 始祖라 한 것은 不正確하다고 하겠다. 한편, 『高麗史』의 記事는 白文寶의 父 白堅이 뒤에 「始居稷山縣」(行狀)하면서 一時 移貫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後孫들이 곧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一時的 現象을 나타낸 것이며,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이같은 『高麗史』의 記事를 그대로 取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0) 註(12)의 白文寶 家系表에 보이는 人物들 가운데 白思系는 光宗 24년(973)에 壯元으로 登第하였고, 成宗 10년(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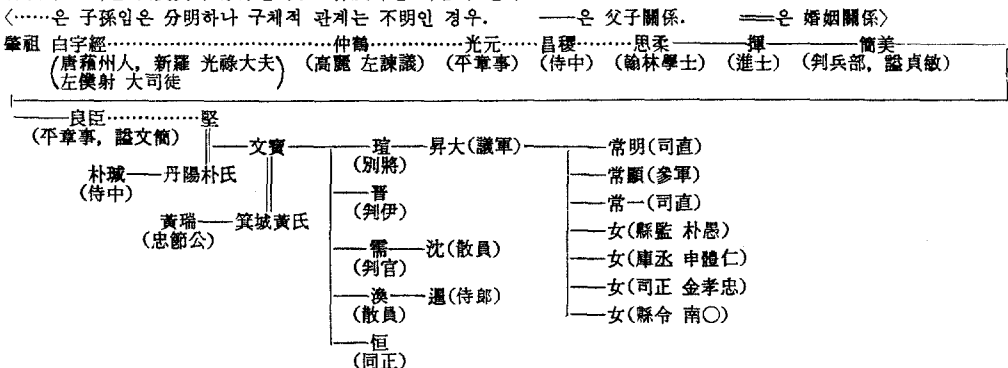
내고 있지만⁽¹¹⁾, 白文寶 자신은 별로 커다란 家門의 後光을 입지 못했던 것 같다. 白文寶의 行狀에 의하면, 高麗初에 활약한 혁혁한 先祖들의 世系에 언급한 다음, 百數十年의 空白期를 지나 그의 父 昇平府使 白堅을 들고 있는데⁽¹²⁾, 이는 資料의 인멸이 직접적인 原因을 이룰 터이지만, 또한 白文寶의 祖, 曾祖, 高祖가 뚜렷한 存在로서 쉽게 記憶될 人物은 아니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¹³⁾

白堅은 忠烈王 20년(1294) 당시 郎將으로서 鵠肉을 進獻하기 위하여 元에 파견되는 記事가 『高麗史』에 나타나는 점⁽¹⁴⁾으로 보아, 그는 비교적 지위가 낮은 武臣으로서 高麗 朝廷의 후원 아래 稀貴한 進貢物인 鵠을 捕獲하여 元에 바치면서 政治的 출세를 꾀했던 것 같다. 아마도, 뒤에 보이는 白文寶의 外家와 妻家の 경우가 示唆하는 바와 같이, 白堅의 祖, 曾祖, 또는 高祖는 武臣執權期에 中堅層의 武臣으로 등장하기 시작함으로써 高麗初의 盛勢와는 無關하게 미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家門을 武臣系統의 家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¹⁵⁾ 바로 이와 같이 中堅層 武臣家門의 基盤 위에서, 白堅은 당시 鷹坊을 통해 주로 武官職을 받으면서 進出하였던 新興勢力과 상통되는 모습을 지니고 출세를 위해 힘썼던 것이지만⁽¹⁶⁾, 如意치 않

에 翰林學士로 知貢舉가 된 사실이 『高麗史』 選舉志 1, 選場條에 나타난다. 白堅系를 前後로 하는 人物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과장이 걸드린 家系表대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들이 官職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 (11) 白任至(1131~1191)는 註(9)에 보이는 것처럼 ‘大興郡人’으로 白文寶와 本貫이 같은 人物이었음이 분명하지만, 白文寶의 直系 祖上은 아니었던 것 같다. 知門下省事의 宰臣級에까지 올랐지만, 白任至의 墓誌銘에는 奇異하게도 子孫에 대한 言及이 없다. 한편, 『高麗史』 列傳 13, 白任至傳에는 ‘藍浦縣人’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의 墓誌銘에 ‘嘗寓於外祖鄉藍浦縣’ (『朝鮮金石總覽』〈上〉 p. 414)이라 한 記事가 示唆하는 바와 같이, 外祖鄉인 藍浦로 移居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12) 行狀에 보이는 白文寶의 家系를 表로 作成하면 다음과 같다.



- (13) 文宗代(1046~1082) 무렵에 활약했으리라고 推斷되는 白良臣과 白堅과의 사이에는 약 150년간의 隔差가 생기는데, 行狀에서 그 사이를 메울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白文寶 死後 약 200년 지난 다음 七代孫에 의해 이루어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뚜렷한 人物이 있었다면, 그토록 失系되는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 (14) 遣郎將 白堅 如元 獻鵠肉 鵠多出於河陽·永州之地 每歲 遣使獲之 騷擾一方 民甚苦之(『高麗史』世家 31, 忠烈王 20年 12月 戊戌)

- (15) 당시의 婚姻關係가 비슷한 性向과 水準의 家門 사이에 이루어졌으리라는 점과 白堅이 분명히 武班職을 지닌 武臣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 (16) 이 무렵 鷹坊을 이용하거나, 蒙古語를 익히거나, 또는 다른 길을 통하여 새로이 宰相의 職에 오르는 사람들의 경

았는지 四品職인 昇平府使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¹⁷⁾

한편, 白文寶의 外家は 寧海 朴氏로서⁽¹⁸⁾, 武班으로부터 起家하여 상당한 지체를 지나게 되었던 家門이다. 그의 外祖 朴域은 白文寶의 行狀에 侍中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僕射에까지 오른 사람이거나, 「樸翁稗說」(前集 2)에는 朴域의 祖 朴世通이 通海縣令으로 在任할 때, 潮水를 타고 들어왔다가 미쳐 나가지 못한 거북이 비슷한 巨物을 살려 보낸 덕택으로 그 자신과 아들 朴洪茂는 樞密에, 孫子 域은 上將軍致仕를 거쳐 僕射에 오를 수 있었다는 說話가 실려 있는데⁽¹⁹⁾, 朴世通→朴洪茂→朴域으로 이어지는 家系와 그들의 歷任 官職은 사실과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高麗史』에도 朴世通은 崔忠獻傳 및 高宗 世家에 각각 將軍과 兵部尙書로 나타나고, 朴洪茂는 역시 高宗 世家에 樞密院副使로 나타나거나⁽²⁰⁾, 대체로 寧海 朴氏는 당초 中下層의 官吏를 배출하다가 崔氏武臣政權下에서 朴世通이 武班으로 크게 출세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떨치기 시작하여 朴域에 이르기까지 三代에 걸쳐 武班의 仕路를 통해 上層의 官吏를 배출시키는 家門으로 成長하였는데, 白文寶가 바로 그 外孫으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寧海 朴氏는 朴域 다음부터 그 家勢가 退縮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²¹⁾

白文寶의 妻家は 平海 黃氏인데⁽²²⁾, 丈人 黃瑞는 武班으로 출세하여 宰相인 評理에까지 오르는 人物이다. 그는 忠烈王 23년(1296)에 郎將으로서 金晝, 甕器 및 野雉, 耽羅牛肉을 가지고 元에 使行하여 進貢한 바 있는데⁽²³⁾, 그 후 忠烈王代 말엽에 翼戴功臣이 되어 그의 本貫인 平海縣을 郡으로 올리는 등 出世의 계기를 마련하여서 마침내 評理에까지 오르는 것이다.⁽²⁴⁾ 黃瑞는

우, 새로운 麗元關係의 成立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이 분명하지만(李起男「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 『歷史學報』 52, 1971, pp. 62~65), 그들 대부분은 이미 武臣執權期에 어떠한 變化의 기를 마련했던 家門의 後裔들이었다고 여겨진다.

(17) 白堅은 晩年에 寧海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이곳은 바로 그의 妻 朴氏의 本貫이었다. 行狀 참조.

(18) 行狀에는 白文寶의 母가 '丹陽 朴氏'로 되어 있지만, 寧海의 異名이 丹陽이고, 『萬姓大同譜』(續篇)에는 이 家門이 寧海 朴氏로 나타나므로, 寧海를 本貫으로表記해 둔다.

(19) 「樸翁稗說」의 記事는 다음과 같다.

近世通海縣 有巨物如龜 乘潮入浦 潮落而不得去 民將屠之 縣令朴世通禁之 作大索兩舟 曳放海中 夢老父作拜於前 曰 吾兒遊不擇日 幾不免鼎鑊 公幸活之 陰德大矣 公與子孫必三世爲宰相 世通及子洪茂 俱登樞密 孫域 以上將軍致仕 軼軼作詩曰 龜乎龜乎 莫耽睡 三世宰相虛語耳 是夕 龜夢之曰 君溺於酒色 自滅其福 非予敢忘德也 然將有一喜姑待焉 數日果落致仕 爲僕射

(20) 『萬姓大同譜』(續篇 p. 259)의 寧海 朴氏條에 朴仁謹(大將軍)→朴世通(平章事·通海君)→朴洪茂(平章事)→朴域(左僕射)의 世系가 나타나며, 『高麗史』에도 朴世通은 將軍(列傳 42, 崔忠獻傳) 및 兵部尙書(世家 22, 高宗 15年 12月 戊辰)로서, 朴洪茂는 樞密院副使(世家 24, 高宗 44年 12月 壬寅)로서 나타난다. 『萬姓大同譜』의 官職表記가 약간 과장된 것으로 여겨진다.

· 王賜忠獻子 將軍珣及宜胄·允偉·朴世通·崔俊文等五領軍米 人一石 布 一匹(列傳 42, 崔忠獻傳 高宗 4年)

· 朴世通爲兵部尙書(高宗 15年 12月 戊辰)

· 朴洪茂爲樞密院副使(高宗 44年 12月 壬寅)

(21) 위에 인용한 「樸翁稗說」의 記事에 '三世宰相'이 朴域에 이르러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그가 당초에는 酒色 때문에 上將軍致仕에 머무를 뻔하였다는 사실을 示唆하는데, 이것은 이 家門의 衰落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萬姓大同譜』에는 朴域의 두 아들 朴軼과 朴諤이 아무 職銜없이 나타날 뿐, 그以後의 子孫을 끄집 채 보이지 않고 있다.

(22) 行狀에는 白文寶의 夫人이 '箕城 黃氏'로 되어 있지만, 箕城은 平海의 異稱이며, 『萬姓大同譜』에는 이 家門이 平海 黃氏로 되어 있으므로 平海 黃氏로 해 둔다.

(23) 遣郎將黃瑞 如元 獻金晝·甕器·野雉及耽羅牛肉(『高麗史』世家 31, 忠烈王 23年 正月 壬午)

(24) 黃瑞에 대한 記事로서는 『高麗史』地理志 2, 慶尙道 禮州 平海郡條에,

忠肅王 때에 元 皇后와 太子의 책봉을 축하하는 使節로 入元하는 점⁽²⁵⁾으로 보아, 元에 가는 일이 잦았고, 元과 긴밀한 관계를 지녔으리라 추정된다. 『萬姓大同譜』에 의하면, 平海 黃氏의始祖는 金吾將軍 黃溫仁이며, 그의 曾孫이 黃瑞인 바⁽²⁶⁾, 아마도 이 家門도 武臣執權期에 中堅層의 武臣을 내기 시작하다가 黃瑞가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對元關係의 成立期에 크게 출세하여 상당한 威勢를 지니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黃瑞의 子孫 가운데에는 크게 떨치는 人物이 없었던 것 같다.⁽²⁷⁾

以上的 點토를 종합하면, 白文寶는 武臣執權期에 興起하여 高麗와 元의 새로운 關係가 成立되는 時期에 활발한 進出을 꾀했던 中堅層 武臣 家門의 後裔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外家와 妻家도 매우 類似한 武臣 家門으로, 한때 상당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존재이다. 그러나 위의 三家門은 경우에 따라 顯達한 有力者를 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權門世族으로 成長하지 못한 채, 退縮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白文寶 자신은 별달리 커다란 家門의 背景에 힘입지 않은 상태에서⁽²⁸⁾ 그의 經術과 文學을 바탕으로 政治的 成長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白文寶는 廉潔 正直한 性稟을 갖고 태어나, 15세에 菊齋 權溥로부터 受學하였고, 易學說을 지었다 한다.⁽²⁹⁾ 武臣 家門 출신으로 생각되는 그가 學問에 뜻을 두어 당대의 大學者요 權勢家였던 權溥의 門下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機緣은 잘 알 수 없다. 權溥는 該博한 知識의 소유자였고, 특히 朱子의 『四書集註』를 刊行케 하여 性理學의 보급에 크게 기여한 사람인 만큼⁽³⁰⁾, 白文寶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물론 性理學에도 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찌기 易學說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周易에 대한 깊은 關心과 높은 理解水準을 示唆하는 바로서, 性理學의 成立이 周易의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³¹⁾

忠烈王時 縣人 僉議評理 黃瑞 隨駕入元 翊戴回還 以功陞知郡事 別號箕城

이라 한 것이 있고,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 45, 平海郡條에는,

· 忠烈王時 以縣人 黃瑞 從王入元 有翼戴功 陞爲郡(建置沿革)

· 黃瑞 忠烈王時 以翼戴功 累官至僉議評理(人物)

라 하여 두 군데에 보이는데, 이 記事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다 정확한 事情에 접근할 수 있다. 翼戴功의 구체적 內容은 未詳.

(25) 評理 黃瑞 如元 賀冊皇后·太子(『高麗史』世家 35, 忠肅王 11年 6月 戊午)

(26) 『萬姓大同譜』(下, p. 421 및 續編, p. 46)에는 黃瑞의 曾祖 黃溫仁(金吾將軍)이始祖로 나타나며, 祖 黃佑精(少尹), 父 黃裕中(侍中)도 官職을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高麗史로 確認되는 人物은 아무도 없다. 黃裕中은 黃瑞의 顯達과 관계하여 贈職을 받은 것이 과장되어 侍中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이 家門은 武臣亂 이후 下級의 武班職을 받으면서 官吏層에 들게 되는 미미한 존재였다고 여겨진다.

(27) 前掲『萬姓大同譜』의 平海 黃氏條에 의하면, 黃瑞의 子 宗亮(戶部典書)과 孫 世英(進士)만이 그의 子孫으로 나타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45, 平海郡, 人物條에는 黃瑞와 더불어 朝鮮 開國功臣인 黃希頌이 보이는데, 『萬姓大同譜』에는 黃希頌이 黃瑞의 從曾孫인 것으로 나타난다.

(28) 첫째, 白文寶는 中堅層 武臣 家門의 後裔이지만 결코 權門世族 출신은 아니며, 둘째, 白文寶의 父親 白堅이 뒤에 生活根據地를 轉轉하여 寧海에 이르는 것은 이 家門의 經濟的 基盤이 脆弱함을 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9) 「行狀」 참조.

(30) 『高麗史』列傳 20, 權坦傳 附 權溥傳 및 「樸翁稗說」前集 2, 國家伐叛耽羅

(31) 高麗의 경우에도 性理學 受容에 선구적 역할을 한 禹倬이 易學에 深奧한 理解를 지녔었다는 점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高麗史』列傳 22, 禹倬傳).

을 상기한다면, 이 점은 白文寶의 學問의 成長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白文寶는 18세에 科擧에 합격한 다음, 20세에 彝齋 白頤正의 門下에 들어가 다시 受學하는데⁽³²⁾, 이것이 그의 性理學에 대한 知見을 넓히는 데 至大한 功績을 했다고 여겨진다. 白頤正은 權溥, 禹倬과 같이 安珣의 弟子로서, 忠烈王 24년(1298)에 王位에서 물러나 入元하는 忠宣王을 좇아 燕京에 가서 10년간 侍從하면서 程朱全書를 많이 求得하여 가지고 돌아와 同門 四, 五人과 더불어 相講함으로써 東方學者들이 性理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張本人으로 꼽히는 사람이다.⁽³³⁾

白文寶가 그의 門下에 들어간 忠肅王 9년(1322) 당시 白頤正은 76세의 老年이었고, 다음 해 12월에 別世하므로, 受學期間은 많아야 2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白頤正은 晩年の 弟子로서 白文寶를 가르치면서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白頤正의 門下를 거처간 사람으로 李齊賢, 朴忠佐, 李穀, 李仁復도 있지만⁽³⁴⁾, 白頤正의 行狀이 바로 白文寶의 손으로 씌어지고 있으며⁽³⁵⁾, 白頤正과 白文寶는 같은 白氏로서 高麗初의 白昌稷까지를 共通의 先系로 하는 親族關係에 있었던 것이다.⁽³⁶⁾ 이와 같은 사정 속에서 白文寶는 자신이 지은 行狀을 통하여 그 安分窮理之學과 湛虛純一之象을 높이 평가한 白頤正의 老熟한 學問, 곧 性理學을 한껏 깊이 體得할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白文寶는 두드러진 文學과 經術의 成就로 18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登第했거니와, 그 座主가 된 사람은 李齊賢과 朴孝修였다.⁽³⁷⁾ 益齋 李齊賢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高麗後期를 대표하는 政治家요 學者로서, 權溥의 門生으로 그 사위가 되었고, 또한 白頤正의 門下에서 受學한 바 있는데, 당시 36세의 知密直司事로 知貢擧가 되었던 것이다.⁽³⁸⁾ 그는 文學에 빼어난 人物이지만, 白頤正과 權溥의 門下를 거처, 특히 燕京의 萬卷堂에서 性理學者들인 漢族出身의 江南知性들과 交遊하면서 性理學에 대해서도 깊은 조예를 쌓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³⁹⁾ 한편, 朴孝修는 竹州人으로 당대에 清操한 性稟과 典雅한 文詞로 名望이 높던 人物이었다.⁽⁴⁰⁾

白文寶는 權溥, 白頤正 및 李齊賢, 朴孝修의 4人을 스승으로 했음이 분명하지만, 그 밖에 禹倬도 師事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禹倬이 性理學의 研究 受容에 先驅의 역할을 하고 死去하자, 白文寶는 祭文을 지어 哀悼했다는 것이다.⁽⁴¹⁾ 그렇다면, 白文寶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白頤正

(32) 『淡庵集』 卷3, 附錄「編年」 참조.

(33) 尹瑑均, 『尹文學士遺藁』, 1933, pp. 24~31. 『高麗史』 列傳 19, 白文節傳 附 白頤正傳 및 「文憲公彝齋先生行狀」 참조.

(34) 「行狀」 참조.

(35) 白文寶가 白頤正의 行狀을 撰한 것은 69세인 恭愍王 20년(1371)의 일로, 그가 死去한지 48년이 지난 다음이었다(編年).

(36) 「文憲公彝齋先生行狀」 및 註(12) 참조.

(37) 「行狀」 및 『高麗史』 選舉志 1, 選場, 忠肅王 7年 6月條.

(38) 高柄翹, 「李齊賢」, 『人物韓國史』 Ⅱ, 1965. 『東亞史의 傳統』, 1976.

(39) 鄭玉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 『震檀學報』 51, 1981, pp. 33~46.

(40) 『高麗史』 列傳 22, 尹莘傑傳 附 朴孝修傳.

(41) 年譜에 「壬午 先生年四十 哭禹祭酒倬 有祭文 佚不傳」이라 하였는데, 壬午는 忠惠王 3년(1342)을 가리키며, 禹倬의 享年은 81세였다.

을 위시하여, 權溥, 禹倬 및 李齊賢 등 安珣으로부터 端緒가 열리는 性理學의 受容과 發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스승으로 망라되는 셈이다. 또한, 白頤正과 李齊賢은 오랜 기간 元에 머물면서 누구보다도 中國의 文物에 깊이 接할 수 있었던 존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白文寶는 性理學者로 成長하여 「踐形」이라는 독자적 著述을 하고⁽⁴²⁾, 異端의 배척에 철저했던 특유의 지위⁽⁴³⁾를 지니게 되는 한편, 政治家로서 人事制度, 農業技術 등 多方面에 걸쳐 中國 古今의 事情을 소상히 舉論하는 政策論을 開陳하게 되는 것이다.⁽⁴⁴⁾

白文寶와 가장 切親했던 親友는 같은 해에 登第한 稼亭 李穀이었다.⁽⁴⁵⁾ 그는 白文寶와 마찬가지로 白頤正 및 權溥로부터 受學하였으며, 白文寶 外家の 本貫인 寧海에 잠시 遊行하다가 그곳에서 娶妻한 바 있다.⁽⁴⁶⁾ 鄉吏의 子弟로서 胥吏가 되었다가 登第하였고, 다시 元 制科에 二等으로 合格한 李穀은 文名을 드날리면서 元에서 文翰職을 받아 오랜동안 仕宦하였고, 高麗에 왕래하면서 높은 官職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出來한 儒學者로서 性理學에도 상당한 知見을 지녔을 터이지만, 대체로 經學 전반을 중시하면서 敬을 위주로 하는 修養을 강조하여⁽⁴⁷⁾, 그 자신은 ‘端嚴剛直’의 세평을 받았다. 李穀은 白文寶보다 4년 年上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交友關係는 주고 받은 詩를 통해 알 수 있거니와, 李穀이 54세로 別世하기까지 긴밀한 사이가 유지되었다.

白文寶와 매우 가까웠던 또 다른 親友는 栗亭 尹澤이었다. 그는 白文寶보다 14년 年上이지만 역시 함께 登第한 同榜인 관계로 친밀하였다.⁽⁴⁸⁾ 尹澤의 祖父인 尹諧는 鄉吏로서 登第하여 國學大司成에까지 오르거니와⁽⁴⁹⁾, 尹澤은 특히 忠肅王의 각별한 恩顧를 입어, 뒷날 恭愍王에 대한 遺託을 받아서 忠穆王의 別世 직후 恭愍王 推戴運動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恭愍王 代에 王으로부터 특별한 倚重을 받은 尹澤은 孔子之道를 강조하면서 崔承老의 時務策을 王에게 進講한 바 있다.⁽⁵⁰⁾ 白文寶는 尹澤을 위해 栗亭記를 쓰고, 그 死後에는 墳墓記를 짓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⁵¹⁾, 尹澤의 孫子인 尹紹宗은 白文寶의 門人錄에 올라 있다.

白文寶의 同年으로 安輔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자료상으로는 그의 兄인 安軸과 白文寶 사

(42) 尹紹宗이 白文寶를 위해 지은 挽辭 가운데,

喟然引聖排邪說 卓爾知天著踐形

이란 句節이 있는데, 이어서 ‘踐形 先生所著性理之說’이란 註가 달려 있다(『淡庵集』卷3, 附錄).

(43) 註(165) 참조.

(44) 이에 대하여는 別稿에서 다루려고 한다.

(45) 「行狀」 및 『高麗史』列傳 22, 李穀傳.

(46) 『新增東國輿地勝覽』24, 寧海都護府, 流寓條에,

李穀 未第時 溥遊到此 娶金澤女爲妻

란 記事가 보인다.

(47) 金忠烈, 『高麗儒學史』, 1984, p. 175.

(48) 「行狀」 및 『高麗史』列傳 19, 尹諧傳 附 尹澤傳.

(49) 『高麗史』列傳 19, 尹諧傳.

(50) 李穡, 「栗亭先生尹文貞公墓誌銘并序」, 『高麗名賢集』3, pp. 938~940.

(51) 「栗亭說」은 白文寶와 尹澤이 함께 登第한지 ‘三十有餘年’이 지난 恭愍王代 初期에 씌어졌고, 「尹氏墳墓記」는 尹澤이 死去한 해인 恭愍王 19년(1370)에 씌어졌으며, 둘 다 『東文選』에 수록되었다.

이의 交遊가 확인된다. 安軸은 鄉吏로 登第한 安碩의 아들로서 元 制科에까지 合格한 儒者인 바⁽⁵²⁾, 贊成事에까지 오르는 그는 李齊賢과 同年輩로 白文寶에게는 大先輩가 된다. 동생인 安輔와 安輯도 登第하여 三兄弟가 科擧로 진출함으로써 그의 一家는 유명해졌거니와⁽⁵³⁾, 安軸은 白文寶가 關東存撫使로 나갈 때 그 지방의 八景을 읊은 詩 八首를 지어 주었다.⁽⁵⁴⁾ 한편, 安輔는 恭愍王의 知遇를 받아 政堂文學에까지 올랐으며, 剛直廉潔한 성품에 陰陽拘忌를 싫어했다고 한다.⁽⁵⁵⁾

李齊賢의 아들인 李達尊과도 白文寶는 交遊가 있었다.⁽⁵⁶⁾ 그는 白文寶보다 10년 年下이었고, 文詞로 이름이 높았으며, 登第하여 典理摠郎으로 早卒하지만⁽⁵⁷⁾, 白文寶는 座主인 李齊賢을 매개로 ‘世交’가 있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또한 李齊賢의 堂姪인 李達衷은 白文寶를 위하여 動齋說을 지은 점⁽⁵⁸⁾으로 보아 서로 상당한 出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白文寶보다 7년 年下였던 그는 恭愍王代에 名儒로 密直提學에 발탁되었고, 그의 詩文이 李齊賢에게 높이 평가받았던 사람이다.⁽⁵⁹⁾

白文寶와 交遊했던 人物로 李岳과 閔思平이 있다. 李岳은 白文寶보다 6년 年上인데, 일찍이 登第하여 忠定王 때에 左侍中, 恭愍王代初에 守門下侍中을 지냈다.⁽⁶⁰⁾ 그는 筆法이 빼어나서 당대에 元의 趙孟頫와 相等했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기도 하다. 佛教에도 心醉했던 李岳은 白文寶에게 권유하여 『懶翁語錄』의 序文을 짓게 하였으며⁽⁶¹⁾, 그가 세상을 떠나자 白文寶는 挽詩를 지어 추도하였다.⁽⁶²⁾ 閔思平은 당시의 權門世族인 驪興 閔氏 출신으로 忠定王 때에 贊成事商議에까지 오르지만, 溫雅眞率한 성품을 지니고 詩酒를 즐겨 儒者間에 名望이 높아 李齊賢, 崔瀼 등과 왕래가 많았던 사람이다.⁽⁶³⁾ 그도 白文寶보다 6년 年上이었는데, 死後에 文集『及庵集』이 편찬되자 白文寶는 序文을 쓰면서 서로 詩句를 주고 받은 것이 적지 않았음을 회상하고 있다.⁽⁶⁴⁾ 閔思平도 權溥의 門人이었으므로 白文寶와 그는 일찍부터 交遊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⁶⁵⁾

(52) 『高麗史』列傳 22, 安軸傳 및 李穀 「大元故將仕郎達陽路蓋州判官高麗國三重大匡(中略)諡文貞安公墓誌銘」, 『高麗名賢集』 3, pp. 72~73.

(53) 李穡,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 『高麗名賢集』 3, pp. 854~856.

(54) 『謹齋先生集』 卷之二, 補遺에 「白文寶按部上誦八首」라 題한 다음 序에 이어 八景을 읊은 詩가 실려 있다.

(55) 『高麗史』列傳 22, 安軸傳 附 安輔傳.

(56) 「行狀」참조.

(57) 『高麗史』列傳 23, 李齊賢傳 附 李達尊傳.

(58) 李達衷의 『雲亭集』 卷3, 「動齋說」에는,

常侍白公文寶 嘗有說動之命 而余不敢者 久矣 今公之存撫關東也 君子皆有詩 余有憂患 來詩益拙 不能爲之歌 姑以動齋說爲別 以代一夕之話 觀者幸毋謫

라는 序에 이어 白文寶가 所居를 動齋라고 한 데 대한 評說이 開陳되어 있다. 白文寶는 淡庵이라는 號와는 별도로 動齋라는 號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動齋說」은 『東文選』에도 실려 있다.

(59) 『高麗史』列傳 25, 李達衷傳.

(60) 『高麗史』列傳 24, 李岳傳 및 李穡 「鐵城府院君李文貞公墓誌銘并序」, 『高麗名賢集』 3, pp. 940~941.

(61) 白文寶 「懶翁語錄序」 참조. 이 글은 『淡庵集』以外에 『懶翁集』에도 실려 있다.

(62) 「挽杏村李侍中岳」이라 題한 이 詩는 『東文選』에도 실려 있다.

(63) 『高麗史』列傳 21, 閔思平傳 및 李達衷 「高麗(中略)贈諡文溫公閔公墓誌銘并序」, 『高麗名賢集』 4, pp. 200~202.

(64) 白文寶 「及庵集序」, 『淡庵集』 2.

(65) 『菊齋實記』 下, 門人錄 참조. 이에 의하면, 李齊賢, 李穀, 白文寶, 李仁復, 崔文度, 閔思平, 李穡, 全信, 朴元桂가

白文寶의 文集인 『淡庵集』附錄 同門錄에는 李齊賢을 비롯하여 朴忠佐, 李穀, 李仁復이 그와 함께 올라 있는 바, 이들은 白頤正으로부터 受學한 사람들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朴忠佐는 中下層 官吏의 家門 출신으로 일찌기 登第하여 忠穆王 때에 判三司事에까지 오르는데, 白頤正 이 오랫동안 元에서 性理學을 공부하고 歸國하자, 李齊賢과 함께 가장 먼저 師受한 사람이기도 하다.⁽⁶⁶⁾ 그는 白文寶보다 17년 年上이었다. 李仁復은 당시 많은 登第者를 내면서 크게 興起 하던 星州 李氏家門 출신의 儒者로서, 元 制科에 합격하여 元의 大夫에까지 올랐던 人物이다.⁽⁶⁷⁾ 그는 恭愍王으로부터 특별한 信任을 받으면서 判三司事의 지위에 오르는데, 白文寶와 같은 해에 별세하지만, 5년 年下였다. 그러나 白文寶가 朴忠佐나 李仁復과 특별히 切親한 관계였음을 나타내 주는 직접적 자료는 눈에 띄지 않는다.⁽⁶⁸⁾

白文寶와 交遊한 사람은 그 밖에도 적지 않을 것이다.⁽⁶⁹⁾ 그렇지만,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추적하여 찾아낸 위의 人物들을 통하여 그의 交遊 범위는 충분히 짐작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한결같이 科擧를 통해 入仕한 사람들이며, 元 制科에 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 白文寶와 切親했던 同年들은 鄉吏의 後裔들이었으며, 대체로 權門世族과는 상당한 거리를 지니는 家門背景을 지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安珣을 거쳐 白頤正의 學問을 계승하며, 특히 李齊賢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多數 포함되어 있었다. 요컨대, 白文寶와 交遊했던 이들은 대체로 당시 高麗社會에 별다른 保守的 基盤을 지니지 않은 채, 새로이 受容되는 性理學을 受學한 儒學者群으로서, 그들은 모두 科擧를 통해 官吏로 진출하였으며, 元 制科에의 合格을 통하여 文名을 날리고 權威를 쌓아가는 경향도 보여 준다.⁽⁷⁰⁾ 그들이 대부분 恭愍王의 두터운 信任을 받아 樞要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점이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이는 白文寶의 政治的 成長과 관련하여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여겨진다. 白文寶는 아마도 中堅層 武臣家門의 後裔일 것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배경을 지니지만, 政治的 社會的 立場에서 權門世族과는 利害關係를 함께 할 수 없는 위에, 性理學이라는 새 學問으로 묶여져서 그들과 去就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推斷되는 것이다.

權門의 門人으로 나타난다.

(66) 『高麗史』列傳 22, 朴忠佐傳 및 同 列傳 19, 白文節傳 附 白頤正傳.

(67) 『高麗史』列傳 25, 李仁復傳 및 李穡「有元奉議大夫(中略)謚文忠公愍隱先生李公墓誌銘并序」, 『高麗名賢集』3, pp. 918~921.

(68) 그러나, 恭愍王 10년(1361)의 紅巾賊의 제2차 침입으로 開京이 함락당하면서 많은 文籍이 散佚되었던 사정을 생각하면, 現存하는 資料만으로 白文寶와 이들의 관계가 緊密치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69) 이를테면, 『淡庵集』附錄에는 雪谷 鄭誦(1309~1345)의 「約遊白和父園」이라는 詩가 있어서, 科擧 출신자로 文名이 높던 鄭誦과 白文寶가 交涉이 있었음을 示唆하고 있는데(『高麗史』列傳 19, 鄭誦傳 附 鄭誦傳),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더 있었을 것이다.

(70) 元에서 科擧제가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高麗에서도 應試者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元 制科에 合格하는 사람이 忠肅王代부터 恭愍王代에 걸쳐 모두 8인에 이른다. 그 가운데, 安軸, 李穀, 安輔, 李仁復의 4인이 앞에서 白文寶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 지적되었거니와, 制科 合格者들은 元의 權威를 바탕으로 高麗의 學人들 사이에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附元輩들을 견제하는 구실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整治官으로서의 改革活動

白文寶의 仕宦은 忠肅王 15년(1328) 26세 때에 春秋館의 檢閱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⁷¹⁾ 檢閱은 正九品の 末端職이지만, 史官으로서 王의 言行 및 政事・百官의 是非得失을 記錄하는 자리인 만큼, 文行이 있는 者라야 갈 수 있었다.⁽⁷²⁾ 史官으로서의 白文寶는 忠肅王 15년 및 同王 16년에 걸쳐 時政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史論 둘을 남기고 있다.

史臣白文寶曰 王留燕五年 憂勞驚悸 損傷天性 及還國 常居深殿 忽忽不樂 不接朝臣 不親政事 由此 小人並進 如祖倫・安道・之鏡・申時用等 專擅權柄 實官衙獄 無所不至 臺諫章疏 中沮不啓 其不遭譴責於買驢 幸矣(『高麗史節要』 24, 忠肅王 15년 7월)

史臣白文寶曰 變理陰陽 宰相職也 旱氣太甚 尤當敬畏 以答天譴 曾是不思 而徒責雨於巫 豈不謬哉(『高麗史節要』 24, 忠肅王 16년 5월)

앞의 史論은 忠肅王이 심각했던 第二次 立省策動과 藩王派의 蠢動 때문에 元으로부터 國王印을 빼앗긴 채 여러 해 동안 燕都에 머물러 있다가 겨우 事態가 수습되자 歸國하지만, 그 후 政事に 消極的인 자세를 취하다가 다시금 藩王派의 모략으로 元의 使臣 買驢가 와서 王을 詰問한 데⁽⁷³⁾ 대한 評이다. 뒤의 史論은 당시 격심한 旱魃에 대처하여 朝廷에서 무당들을 모아다가 6일 동안 祈雨한 일⁽⁷⁴⁾에 대하여 批評한 것이다.

이 史論들은 철저한 現實批判을 내용으로 하는 氣概 높은 것이라 하겠다. 王이 親政을 하지 않는 배경과 그로 인한 ‘小人’들의 擅權을 直筆하면서 王의 자세에 대한 批判을 드러내는가 하면, 災異에 迷信的으로 대처하는 宰相들의 자세를 正面에서 공박하고 있다. 또한, 이 史論 가운데에는 儒學的인 立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니, 天變災異를 天譴으로 파악하면서 巫覡을 배격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이 史論이 史官의 이름이 記名된 채 開陳되어 있으며, 小人으로 指目된 擅權者들도 舉名되고 있는데, 이처럼 直截한 史論이 처음 入仕하여 史官이 된 26세 및 27세의 白文寶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白文寶는 그 후 계속하여 한동안 文翰의 職任을 맡았던 것으로 여겨지며, 忠肅王 後 5년(1336) 34세 때에 諫官인 正言에 올랐다.⁽⁷⁵⁾ 그는 忠惠王 後 2년(1341)에 39세로 諫官으로는 最高職인 右常侍(正 3品)에 보임되는데⁽⁷⁶⁾, 이 지위는 忠穆王 원년(1345)에 關東存撫使로 나아가기⁽⁷⁷⁾

(71) 『高麗史』 列傳 25, 白文寶傳 및 「行狀」 참조.

(72) 『高麗史』 百官志 1, 春秋館條 참조.

(73) 『高麗史』 世家 35, 忠肅王 15년 7월 己巳.

(74) 『高麗史』 世家 35, 忠肅王 16년 5월 丁卯.

(75) 「行狀」 참조. 「編年」에 의하면, 白文寶는 29세인 忠惠王 1년(1330)에 翰林이 되었다가 이때 正言에 올랐다고 한다. 翰林이란 藝文館의 修撰(正 8品)을 가리키는 것 같다.

(76) 「編年」 및 『高麗史』 列傳 25, 白文寶傳.

(77) 「編年」 및 李達衷, 「動齋說」(註58) 참조.

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白文寶는 入官하여 근 15년 동안 文翰職과 諫官職을 맡아 典型的인 儒學者 출신의 官吏로서 從仕하였던 셈이다.

白文寶가 諫官職에 나아가는 것은 元에 入朝하는 忠肅王을 수행하던 도중 王의 詩에 和答하는 「淸平詞」를 지어 크게 稱嘆을 받고 ‘以翰林直拜正言’하게 되면서였다. 아들인 前王(忠惠王)과의 葛藤과 濤王派의 모략 속에서 스스로 辨明하기 위하여 不得已 入元해야 했던 忠肅王은 白文寶의 淡泊한 文詞를 높이 사서 그를 正言으로 발탁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淸平詞」가 ‘和進淸平擬謫仙’한 것이었다는 白文寶 자신의 설명⁽⁷⁸⁾으로 보아, 李白을 謫仙으로 비유하는 가운데 忠肅王을 慰安하는 內容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白文寶의 諫官으로서의 任務 수행은 王을 좇아 元에 가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시작되었던 셈이다. 忠肅王은 그후 5년 12월에 鴨綠江을 건너 入元하였다가 다음 해 12월에 歸國하기까지 滿 1년 동안 滯元하는데⁽⁷⁹⁾, 白文寶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동안 白文寶는 客地에서 王을 隨從하는 한편, 中國의 文物을 익히는 데 많은 關心을 쏟았으리라고 여겨진다. 그가 中國 古今의 事情에 達通할 수 있었던 것⁽⁸⁰⁾은 學問이나 스승 때문만 아니라, 이 때의 긴 滯元의 經驗에 緣由하는 바 클 것이다. 아 물론 白文寶는 忠肅王의 知遇를 받아 諫官에 발탁되었고, 元都 燕京에서 1년간 王을 隨從하는 일로부터 諫官生活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후 白文寶는 諫官으로서 이저러진 高麗의 政治的 社會的 現實을 匡正하는 데 힘썼던 것 같다. 당시 諫官이 할 수 있는 일은 王에 대한 諫諍과 臺諫으로서 署經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의 諫官으로서의 활동도 이러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白文寶가 諫官으로 일하는 모습에 대하여 李穀은 「寄白和父諫議」란 詩⁽⁸¹⁾에서,

日飲黃封醉似泥 時時騎馬欲鷄棲
世無韓子爭臣論 誰見溫公諫院題

과 읊으면서 그를 慰安 激勵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날마다 飲酒로 시름을 달래고, 騎馬한 모습이 鷄棲처럼 움츠러지려고 한다는 表現은 白文寶가 어려운 現實을 안고 때때로 위축되면서 힘겹게 職務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그의 諫諍은 韓愈의 爭臣論에 比肩되는 것이기도 했다.

白文寶가 諫官으로 활약하던 忠肅王代 말엽으로부터 忠惠王代에 걸치는 時期는 政治的으로

(78) 白文寶의 詩「洪武四年 駕行長湍 拜獻主上殿下」가운데에는,

腐儒忽憶從毅廟 和進淸平擬謫仙

賜馬拜職紫微郎 今看盛事愧如前

이란 句節이 있고, 詩의 末尾에 本註라 하여 ‘臣於丙子 從毅陵如朝 上作詩命和 賜馬 以翰林直拜正言’이라 하였는데, 毅廟, 毅陵은 忠肅王을 가리킨다(『淡庵集』卷1).

(79) 『高麗史』世家 35, 忠肅王 後 5年 12月 辛卯 및 同 後6年 12月條.

(80) 註(44)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이 점은 別稿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81) 『稼亭集』卷81, 律詩(『高麗名賢集』3, p. 117). 이 詩는 『淡庵集』附錄에도 실려 있다.

매우 암담하였으며, 특히 그가 右常侍(右諫議大夫)에 오르는 忠惠王 2년 무렵은 王의 放縱 淫亂이 극도에 달하고 紀綱의 紊亂이 더없이 격심해진 때이기도 했다.⁽⁸²⁾ 그와 같은 與件 아래에서 白文寶는 諫官職을 지니었고, 더우기 昇進까지 하게되는 바, 그는 상당한 妥協과 屈折도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白文寶는 어려운 現實과 부딪치면서 中道를 지키는 가운데 諫官으로서의 所任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忠穆王 원년에 右常侍로 關東存撫使에 임명되어 떠날 때, 李達衷은 그에게 「勳齋說」을 지어 주면서 기념하였는데, 그 가운데,

公之名日騰而不可掩⁽⁸³⁾

이라 하여 그의 높은 名望을 설명한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는 아니었을 것이다. 비슷한 時期에 李穀도 詩 속에서,

先生比我年顏少 努力匡時到白頭⁽⁸⁴⁾

라 하여 白文寶가 時弊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白髮이 되었다고 읊은 것도 這間의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⁸⁵⁾

白文寶의 政治的 活動은 忠穆王代에 설치되는 整治都監의 整治官으로 改革運動에 참여함으로써 커다란 빛을發하게 된다. 白文寶로서는 政治家로서의 그의 生涯 前半部를 決算하면서 高麗後期社會의 歷史的 成長을 뜻하는 중요한 움직임 가운데 주목받는 人物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整治都監의 設置緯經과 그 性格에 대해서는 前稿에서 검토한 바 있으므로⁽⁸⁶⁾, 여기에서는 간단히 필요한 설명만을 하면서 白文寶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나가기로 한다.

당시 高麗社會의 弊政改革을 위하여 整治都監이 설치된 것은 忠穆王 3년(1347) 2월의 일이었다.⁽⁸⁷⁾ 그러나, 忠惠王이 元에 붙잡혀 가서 流配당하여 가는 도중에 비참하게 死亡하고, 8세의 忠穆王이 즉위하면서(1344), '復正三韓'이 표방되는 가운데 이미 改革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그것은 元이 忠惠王의 失政을 응징하면서, 王側近에 있던 實權者들을 多數 元으로 拘執해간 바 있고, 忠穆王의 즉위에 즈음한 元 皇帝의 詔書에 前王의 虐政을 釐革하도록 당부한 바 있는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元의 政策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꾸준히 成長한 儒學者群을 중심으로 하는 政治勢力이 改革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활발한 現實改善에의 努力

(82) 閔賢九, 「整治都監의 設置緯經」, 『國民大學論文集』 11, 1977, pp. 81~83.

(83) 李達衷, 「勳齋說」, 『高麗名賢集』 5, p. 199.

(84) 李穀, 「寄白和父」, 『高麗名賢集』 3, p. 119.

(85) 李達衷의 「勳齋說」 末尾에 다음과 같은 內容이 보인다.

公嘗由定靜安慮之鄉 遊于大化聖神之國 主至善之家 而求用焉 一日 上御明光殿 召見公 問以天下之故 對稱旨 上甚悅 曰 朕將大用 賜以中和之酒 公輒釀而醉 休于所居之齋 或曰 命之矣

이것은 아마도 李達衷이 白文寶에게 到來하게 되기를 바라는 假想的 상황을 서술한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白文寶가 그만큼 각박한 政治狀況 속에 處해 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6) 閔賢九, 「整治都監의 設置緯經」, 『國民大學論文集』 11, 1977. 및 「整治都監의 性格」, 『東方學志』 23-24, 1980.

(87) 『高麗史』 世家 37, 忠穆王 3年 2月 己丑.

을 기울일 수 있었다는 점이 보다 주목할 일이라고 하겠다.

忠穆王이 즉위하자, 그때까지 ‘群小’에 눌러 ‘屏迹不出’하던 李齊賢이 長文의 上書를 올려 時弊를 논하면서 改革을 주장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나이 어린 王의 修德을 위하여 『孝經』, 『論語』, 『孟子』, 『大學』, 『中庸』을 講하여 格物致知와 誠意正心の 道를 익히게 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⁸⁸⁾ 뒤이어, 元에서 文翰官으로 仕宦하면서 皇帝의 側近에 있던 李穀이 高麗 宰相들에게 致書하여, 高麗가 ‘國之不國’의 상태로 된 責任을 추궁하면서, 用人이 바르게 이루어져 惡小 姦諂한 者들은 물러가야 할 것임을 警告하였다.⁽⁸⁹⁾ 또한 上洛君 金永暉은, 闕庭에서 前王의 幸臣으로 그대로 勢力을 溫存하고 있는 者들의 사치스러운 冠服을 꾸짖으면서, ‘復正三韓’의 계제에 ‘移風易俗之道’를 강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科擧出身者이지만, 權門世族인 安東 金氏로 元에도 有力한 背後勢力을 지니는 존재였다.⁽⁹⁰⁾

이러한 가운데 書筵官이 설치되고⁽⁹¹⁾, 朴忠佐는 王에게 「貞觀政要」를 講하였다.⁽⁹²⁾ 그리고, 科擧法이 改定되어 初場에 六經義 四書疑를, 中場에 古賦를, 終場에 策問을 시험하게 되었다.⁽⁹³⁾ 이는 儒學과 儒學者의 영향이 增大되고, 특히 性理學의 擴散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永陵即位 頗不喜儒 苟非有得於中者 惟虎是效 爲之媚悅⁽⁹⁴⁾

이라 하여, 忠惠王이 儒學을 좋아하지 않아 그 治世를 통하여 儒學者들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은 儒學의 重視와 儒學者들의 영향력 增大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忠穆王 즉위년 10월에 王煦를 首相으로 하는 政府의 改編이 있었고, 뒤이어 政房의 革罷와 祿科田의 復舊와 같은 중요한 改革의 措置가 취하여졌다.⁽⁹⁵⁾ 王煦는 權溥의 아들이요, 李齊賢의 妻男으로서 일찍이 忠宣王의 養子가 되어 宗室로 취급받던 사람인데, 大義에 通하고 剛正하다는 世評을 받았으며, 元으로부터 資德大夫·鷄林郡公이라는 높은 官爵을 받은 바 있었다. 그는 상당한 識見을 갖고, 李齊賢을 비롯한 儒學者들과 가까운 관계였지만, 元側으로부터도 커다란 信賴를 받을 수 있던 人物이기도 했다.⁽⁹⁶⁾ 王煦의 執權과 改革의 實施는 당시 儒學者들을 중심으로 하는 現實改善의 主張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88) 『高麗史』列傳 23, 李齊賢傳.

(89) 『高麗史』列傳 22, 李穀傳.

(90) 『高麗史』列傳 38, 辛裔傳 및 同列傳 17, 金方慶傳 附 金永暉傳.

(91) 『高麗史』世家 37, 忠穆王 즉위年 6月 乙卯.

(92) 『高麗史節要』25, 忠惠王 5年 8月.

(93) 『高麗史』選舉志 1, 科目 1, 忠穆王 即位之年 8月.

(94) 李達衷, 「高麗(中略)贈諡文溫公閔公墓誌銘并序」, 『高麗名賢集』4, p. 201.

(95) 閔賢九, 「整治都監의 設置經緯」, 『國民大學 論文集』11, 1977, pp. 84~89.

(96) 『高麗史』列傳 23, 王煦傳 및 李仁復, 「雞林府院大君贈諡正獻王公墓誌銘并序」, 『東文選』125.

이러한 變革에 대하여 부원배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그 결과 王煦는 취임한지 1년 2개월만인 忠穆王 원년(1345) 12월에 右政丞에서 물러났다.⁽⁹⁷⁾ 그러나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忠穆王 3년 2월에 整治都監이 설치되고, 王煦, 金永暉, 安軸, 金光徹이 그 判事가 되어 본격적인 改革活動을 벌이는 것이다.⁽⁹⁸⁾ 整治都監은 역시 元 皇帝의 勸勉으로 설치되었지만⁽⁹⁹⁾,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忠穆王의 즉위를 계기로 表出된 改革에의 움직임이 귀착된 결과였으며, 그 밑바탕에는 儒學者들을 중심으로 하는 政治勢力의 成長이 介在되어 있었다.

整治都監이 설치되면서 白文寶는 使에 임명됨으로써 整治官이 되었다.⁽¹⁰⁰⁾ 整治官은 宰樞級的 判事 4인과 그 아래로 使 9人, 副使 7人, 判官 12人, 錄事 6인으로 구성되었으므로⁽¹⁰¹⁾, 白文寶는 判事 바로 밑에서 整治都監의 事業을 실질적으로 企劃, 管掌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白文寶는 忠穆王 원년에 右常侍로 關東存撫使가 되어 外職에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 이지만, 그가 整治都監의 使로서 이 기구의 核心的 存在가 된 것은, 뒷날 奇三萬의 獄死事件으로 元이 整治官들을 杖할 때 白文寶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점⁽¹⁰²⁾으로도 推斷할 수 있다.

白文寶가 整治官으로 발탁된 배경은 몇가지 側面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그가 史官과 諫官으로 활약하면서 쌓은 名望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整治都監이 高麗의 弊政을 개혁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실제로 不法과 不正을 摘發 膺懲하는 것이 主任務였던 만큼, 淸直하다는 世評을 받는 臺諫이나 法司의 官員이 整治官으로 적합한 존재였을 터인데⁽¹⁰³⁾, 白文寶는 누구보다도 그것에 잘 해당되는 人物이었으리라 여겨진다. 性理學에 상당한 識見을 갖고, 당시 高麗社會의 非理와 矛盾을 直視하면서 現實과 부닥쳐 온 그의 力量과 實績이 크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白文寶의 家門背景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整治都監의 改革活動은 ‘田民之訟의 聽斷’에 치중한 것이었으므로⁽¹⁰⁴⁾, 많은 田民을 소유한 權門世族 출신의 官員은 利害關係上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셈이었다. 따라서, 中堅層의 官吏 家門 출신으로서 그 자신이 廉潔 正直하였던 白文寶는 주로 田民의 奪占을 究治하는 整治都監의 事業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세째로, 白文寶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整治都監의 설치와 운영에 중심을 이룬다는

(97) 『高麗史』世家 37, 忠穆王 元年 12月 乙丑.

(98) 『高麗史』世家 37, 忠穆王 3年 2月 己丑 및 『高麗史節要』25, 忠穆王 3年 2月.

(99) 『高麗史』列傳 23, 王煦傳.

(100) 「行狀」에는 ‘置整治都監 先生及申公君平(中略)等 并參是選’이라 하였고, 「編年」에는 ‘命先生爲整治都監’이라 하였지만, 당시 3品官이었던 白文寶가 임명받은 것은 정확하게 整治都監의 使였다.

(101) 『高麗史』百官志 2, 諸司都監各色, 整治都監.

(102) 『高麗史』世家 37, 忠穆王 3年 10月 甲午. 이 記事는 바로 뒤(p. 267)에 引用되고 있다.

(103) 실제로 整治官들을 살펴 보면, 臺諫, 代言, 法司官員의 職을 맡았거나, 맡게 되는 인물이 多數이다(閔賢九, 「整治都監의 性格」, 『東方學志』23·24, 1980, pp. 130~131).

(104) 『高麗史節要』25, 忠穆王 4年 正月.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忠穆王의 즉위를 계기로 대두된 改革에의 움직임이 整治都監의 설치로 귀결되었다고 할 때, 李齊賢이나 李穀이 한 역할은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두 사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白文寶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특히 李齊賢은 整治都監의 설치를 主導한 王煦와의 男妹關係 때문에 그 事業에 始終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¹⁰⁵⁾ 또한, 王煦와 더불어 整治都監의 判事가 된 安軸도 白文寶와는 가까운 사이였다. 요컨대, 整治官은 당시 改革을 주장한 李齊賢과 李穀 계통의 儒學者들로 다수 충당되었고, 白文寶의 경우, 李齊賢의 추천으로 王煦가 발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整治都監이 설치되면서 整治官으로 임명된 白文寶는 改革活動을 企劃 管掌하는 中樞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整治都監의 改革活動과 관련하여 整治官들이 한 일은 첫째, 改革의 구체적 指針을 밝힌 改革案으로서의 整理都監狀을 작성하고, 둘째, 按廉存撫使를 兼한 채 各道로 파견되어 田民의 奪占과 兼並을 調査 摘發하고, 세째, 各地方으로부터의 摘發報告와 피해자들의 申訴에 의해 中央에서 田民關係의 懸案들을 究治 聽決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不法不正을 감행한 者들의 治罪活動이 병행되기도 하였다.⁽¹⁰⁶⁾ 그런데, 按廉存撫使를 兼하여 各道에 파견된 整治官 11名の 名單 가운데 白文寶는 들어 있지 않다.⁽¹⁰⁷⁾ 그리고 中央에서 不法을 저지른 者들을 究治하는 데 있어서도 그는 特定한 사람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¹⁰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奇三萬의 獄死事件으로 整治官 大多數가 元使에 의해 杖罰을 당하는 記事를 보면,

元 以三萬之死 遣直省舍人 僧家奴 杖整治官 白文寶 申君平 全成安 河楫 南宮敏 趙臣玉 金達祥 盧仲孚 李天伯 許湜 李承閔 安克仁 鄭光度 吳環 徐浩 田祿生 唯安軸 王煦 以聖旨原之 前判密直 金光輦 前大護軍 李元具 以病免(『高麗史』世家 37, 忠穆王 3年 10月 甲午)

이라 하여 白文寶가 冒頭에 舉名되고 있다. 이는 그가 使의 職任과 관련하여 실제로 整治都監의 活動을 대표하는 整治官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¹⁰⁹⁾ 구체적으로는, 改革指針의 作成이나 全般的인 究治·聽決이나 상황의 調整과 같은 基本的이며 原則的인 일들을 맡은 中樞의 存在였으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整治官으로 활약하는 동안은 白文寶에게는 得意에 찬 時節이었다. 不法不正을 저지른 右政丞 蔡河中, 左政丞 盧頊, 征東行省理問 尹繼宗, 丹陽府院大君 王珣와 같은 最高位의 有力者들을 整治都監은 究治하였던 것이다.⁽¹¹⁰⁾ 그들은 高位의 官職을 지니거나, 元 機關의 要員이거나

(105) 李齊賢은 恭愍王 2年, 知貢舉가 되어 科擧를 主管하게 되자, 策問에서 整治都監의 改革에 대하여 學論하였다(閔賢九, 「益齊 李齊賢의 政治活動」, 『震檀學報』 51, 1981, p. 235.).

(106) 閔賢九, 「整治都監의 性格」, pp. 128~129.

(107) 『高麗史』世家 37. 忠穆王 3年 2月 辛卯.

(108) 整治官이 特定人의 究治를 담당했던 例로 錄事 曹光乙이 盧頊을 究治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高麗史』列傳 44, 盧頊傳).

(109) 王煦 등의 判事 4人은 實務를 담당하지 않고, 政治의 問題를 주로 처리하였을 것이다.

(110) 閔賢九, 「整治都監의 性格」, pp. 101~103.

또는 王室의 至親으로 有力한 지위에 있는 者들로서 한결같이 元과 密着되어 있었으며, 土地의 奪占과 不法占有 및 奴婢의 奪取와 壓良爲賤을 통하여 高麗의 社會經濟秩序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존재였다. 오랫동안 諫官으로 일하면서 이같은 不法과 不正을 看過할 수밖에 없었을 白文寶로서는 元 皇帝의 勸勉으로 설치된 강력한 整治都監의 權能에 힘입어 그들 有力한 附元輩들을 추궁하고 懲罰하면서 잘못을 是正토록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整治都監에서의 改革活動과 관련하여 白文寶의 立場이나 견해를 직접 알려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整治都監의 改革指針이라고 할 수 있는 整理都監狀⁽¹¹¹⁾은 간접적으로나마 그것을 示唆한다고 생각된다. 白文寶의 손으로 整理都監狀이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是認과 同意 아래 그것이 確定되었으리라는 점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整理都監狀은 政治, 經濟, 社會의 各方面에 걸친 12項目의 改革案으로서, 各項目은 당시 잘못되어 있는 현상을 서술하고, 그에 대하여 是正措置를 취해야 할 것, 또는 그 違法者의 處罰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田民의 奪占과 연관이 깊은 農莊과 收租 관계의 폐단을 다룬 經濟 분야에 중점이 놓여 있거니와, 整理都監狀을 통하여 주목되는 것은 당시 高麗社會에 矛盾과 混亂을 야기시키는 主體가 元과 관계가 깊은 機關, 또는 元과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 대두한 勢力家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高麗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도달된 자연스러운 歸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反元的 性格을 띠는 것이기도 했다.⁽¹¹²⁾

이처럼, 白文寶가 적어도 소극적으로 간여하였을 整治都監의 改革案이 反元的 性格을 지니고 있으며, 그가 중심역할을 하면서 추진하였을 실제의 改革活動이 有力한 附元輩들을 究治하는 것이었다면, 白文寶는 뚜렷한 排元的 立場을 堅持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高麗가 元의 駙馬國으로 된지 3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出生하였으므로, 元을 중심으로 하는 東아시아 世界의 秩序는 白文寶에게 익숙한 것이었고, 高麗와 元과의 특이한 關係도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白文寶는 한 때, 元에서 仕宦하는 親友 李穀을 부러워하여, 元의 使命을 떠고 高麗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를 보내면서,

我欲從公遊上國 安能鬱鬱在荒陬⁽¹¹³⁾

라 읊었으니, 高麗를 荒陬라 하여 卑下된 表現으로 나타내면서, 李穀을 좇아 上國, 즉 元으로 가서 活動하고 싶어하는 心情을 吐露하고 있다. 白文寶에게는 그의 다른 同年輩들과 마찬가지로 整治都監이 설치될 무렵까지 排元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¹¹⁴⁾

(111) 閔賢九, 「整治都監의 性格」, pp. 109~112.

(112) 閔賢九, 「整治都監의 性格」, pp. 112~127.

(113) 이 詩의 題目은 「送奉使稼亭李中父穀還朝」이며, 『淡庵集』 冒頭에 실려 있다.

(114) 白文寶가 中堅層 武臣 家門의 後裔로 그의 父親이 元에 使行하면서 政治의 進出을 꾀하는 가운데 成長하였다는 점과 白文寶가 온건한 現實主義者로서의 風貌를 지닌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의 排元的 자세는 想定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儒學者로서의 識見에 입각하여 立省策動이 거듭되는 가운데 高麗의 獨立王國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白文寶는 整治都監의 改革活動을 펼쳐 나가면서 高麗와 元과의 關係에 대해 再認識 할 수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高麗社會의 모든 非理와 不正이 결국 元과 관련된다는 점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整治都監의 改革活動 자체가 奇三萬의 獄死로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특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 같다. 整治都監이 設置된 지 2개월만인 忠穆王 3년 4월에 土地의 奪占 혐의로 究治를 받던 奇皇后의 親族 奇三萬이 獄死하게 되자, 整治官들이 오히려 征東行省理問所의 獄에 갇히고, 끝내 改革活動은 挫絶되고 말았으니, 元의 勸勉을 계기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元의 勢力을 등지고 不正 不法을 저지르던 者들을 懲治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元이 介入하여 失敗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¹¹⁵⁾

整治都監의 弊政改革運動은 그 자체로서는 成功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高麗가 元의 駙馬國인 상태 아래에서 反元的 성향까지 띠면서 적극적으로 社會의 諸矛盾을 극복하려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로 여겨지거니와, 白文寶가 整治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도 여러 側面에서 吟味되어야 할 바라고 하겠다. 白文寶는 中堅層 武班 家門의 後裔로 性理學을 공부하고 登第한 다음, 入仕하여 文翰官과 諫官으로 복무하다가 자연스럽게 整治官으로 발탁되었다. 整治都監의 設치가 性理學을 修學한 儒學者群의 成長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白文寶는 그 一員이었던 것이다. 그는 整治官으로서 元을 背景으로 하는 最高位の 權力者들을 究治하는 일에 參劄하고, 反元的 성격을 지닌 整治都監의 改革案을 만드는 데에도 干與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그의 性理學을 중심으로 하는 儒敎의 素養과 氣概가 큰 힘이 되었겠지만, 또한 整治官으로서의 활약을 통하여 白文寶는 高麗社會의 矛盾과 混亂이 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高麗의 現實에 대한 理解의 地平을 넓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整治官으로서의 활약은 白文寶의 生涯 前半部를 결산하면서 그 政治的 成熟을 가져 온 값진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셈이다.

IV. 恭愍王代の 改革政治와의 關係

1) 初期의 改革政治에의 參與

整治都監의 改革活動을 둘러싼 波動이 있는지 1年餘가 지난 忠穆王 4년(1348) 12월에 王이 死亡하였다. 다음의 王位를 놓고 忠穆王의 庶弟인 王昫(뫼날의 忠定王)와 그 叔父인 王祺(뫼날의 恭愍王)가 다투는 形勢가 연출되었다. 王煦, 李齊賢, 李穀, 尹澤, 李承老 등이 王祺의 推戴 運動을 벌였는데, 그들은 대체로 整治都監의 改革活動을 主導하거나 側面에서 지원한 勢力으로서, 당시 民望을 모으고 있던 19세의 王祺가 王位에 오름으로써 高麗의 혼란과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반면에 盧頊, 崔濡와 같은 附元輩 세력은 12세의 王昫를 추대하려 하였

(115) 閔賢九, 「整治都監의 設置經緯」, pp. 94~95.

는데, 결국 元은 王祗를 高麗王으로 指名하였다.⁽¹¹⁶⁾

그러나 忠定王代는 2년 남짓한 期間동안 지속되었을 뿐이다. 王祺를 추대하려 했던 尹澤과 李承慶이 泛出되고, 李穀은 不安感에 쌓여 關東遊覽에 나서며, 李齊賢은 政治의 表面으로부터 사라지는 가운데 附元輩 세력과 忠定王의 母后인 禧妃 尹氏의 側近들이 執權勢力을 形成하였지만, 그들의 政治의 主導權을 둘러싼 對立이 격심했던 위에, 새로이 倭寇의 침입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결국, 内外의 紛亂과 憂患이 加重되면서 束手無策의 상태를 露呈시킬 뿐인 忠定王政權에 대하여 元은 不信感을 갖게 되고, 끝내 元의 命에 의해 忠定王은 遜位당하고 말았다.⁽¹¹⁷⁾ 뒤이어 王祺가 高麗王位에 오르니(1351), 그가 곧, 恭愍王으로 即位와 동시에 ‘一國更始’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政治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白文寶는 忠定王 원년(1349)에 外職인 廣州牧使에 임명되었다.⁽¹¹⁸⁾ 整治都監이 끝내 革罷되고,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王祺를 추대하려다가 失敗하여 政治의 지위가 不安해진 상황 아래에서 白文寶가 外職이지만 要地의 守令에 기용된 것은 그의 處事가 公正하였고 政治의 으로 신중한 姿勢를 堅持했던 때문이라고 여겨진다.⁽¹¹⁹⁾ 그는 廣州牧使로 재임하면서도 淸風樓를 改修하고, 李穀에게 그 記文을 부탁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하였다.⁽¹²⁰⁾ 1년 남짓 복무한 다음, 그는 宗簿令으로 임명되어 開京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로부터 다시금 1년이 지나 恭愍王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白文寶는 典理判書의 要職에 임명되고, 뒤이어 書筵官으로 選任되는 등 重用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恭愍王의 改革政治에 참여하게 된다.

10년간에 걸친 元에서의 宿衛生活 끝에 22세의 젊은 나이로 高麗王位에 오른 恭愍王은 改革을 통해 高麗를 重興시키려는 커다란 포부를 갖고 있었다. 在元中 갑자기 王位에 오르자, 미처 高麗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李齊賢을 攝政丞・權斷征東省事로 임명하여 政治의 수습을 하게 했고, 곧 首相인 都僉議政丞으로 삼아 國政을 總領케 하였다.⁽¹²¹⁾ 李齊賢은 당시 名望이 높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에 恭愍王의 推戴運動을 벌인 적도 있었다. 恭愍王은 即位敕書에서 자기를 도와준 王煦가 先沒한 것을 追念하고 있거니와⁽¹²²⁾, 대체로 整治都監의 改革活動을 主導하거나 지원하였고, 뒤이어 恭愍王의 推戴를 바랐던 儒學者 세력이 이때에 大舉 등장하는 것이다. 이같은 人事布石을 바탕으로 政房의 革罷를 단행하고, 田民辨整都監을 설치하는 등 改革政治를 시도하였다. 또한, 李衍宗의 건의로 王이 蒙古式의 辨

(116) 閔賢九, 「益齋 李齊賢의 政治活動」, 『震檀學報』 51, 1981, pp. 231~232.

(117) 閔賢九, 「高麗 恭愍王의 即位背景」, 『韓沽肋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pp. 800~803.

(118) 「行狀」 참조.

(119) 忠定王이 即位하면서 閔思平이 功臣號를 받고 贊成事商議에 나아가며 提調政房에 임명됨으로써 白文寶를 外援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高麗史』列傳 21, 閔宗儒傳 附 閔思平傳 및 『高麗史』世家 37, 忠定王 元年 閏7月 丁卯).

(120) 「行狀」 및 李穀 「淸風亭記」(『高麗名賢集』 3, pp. 42~43) 참조.

(121) 『高麗史』列傳 23, 李齊賢傳.

(122) 『高麗史』世家 38, 恭愍王 元年 2月 丙子.

髮 胡服을 푸는 한편, 箕子祠를 修築 奉祠케 함으로써 高麗의 自主의 傳統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기도 하였다.⁽¹²³⁾ 이와 같은 恭愍王의 第1次 改革政治는 王의 即位初에 조심스럽게 추진되었던 것이다.

恭愍王의 即位와 더불어 白文寶가 典理判書에 등용된 것은 李齊賢이 首相으로 되고 儒學者 세력이 등장하는 추세에 부응되는 일이었다. 典理判書는 三品官이지만, 人事行政을 관장하는 典理司(吏部)의 長官으로, 손꼽히는 要職이었다. 武臣執權期 이래로 政房에서 人事行政을 處理해오는 동안 典理判書(吏部尙書)의 權能은 弱化되기도 했지만, 政房을 폐지하고 人事行政을 典理司(吏部)와 軍簿司(兵部)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으며⁽¹²⁴⁾, 典理判書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白文寶가 典理判書로 임명되었으리라고 여겨지는 恭愍王 즉위년(1351) 11월부터 3개월이 지난 恭愍王 원년(1352) 2월에 改革政治의 一環으로 政房이 革罷됨에 따라 文官의 人事行政은 典理司의 관장사항으로 돌아왔고, 白文寶가 그 長官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기에 이르렀다.⁽¹²⁵⁾ 政房의 革罷措置가 白文寶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는 不明이지만, 白文寶의 典理判書 在任中에 이같은 變化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의 地位가 강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때 白文寶는 人材登用과 人事行政에 관한 上書를 하여 새로운 建議를 하였다. 『高麗史』選擧志 3, 銓注, 恭愍王 元年 3月條에 있는 典理判書 白文寶의 上書文은 두 가지 內容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人材登用은 宋 司馬光이 주장한 바 官員의 職務를 師表, 顧問, 臺諫, 將帥 등등 10科로 區分짓고, 人物을 資質과 識見에 따라 그에 부합되도록 選任하되, 三品以上の 職事官과 六品以上の 侍從官의 薦擧에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人事行政은 당초 典理司와 軍簿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政房에서 맡아 왔는데, 근래 原則이 크게 亂되여 前職者가 나라에 가득차고, 奔競者가 매우 많아졌으며, 不必要한 官署의 설치로 冗員이 增大되고 都目이 빈번해지게 되었으니, 官署를 減併하고, 冗員을 도태시키고, 都目을 合錄시켜 名利를 다투는 길을 끊음으로써 是正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白文寶의 主張 가운데, 人材의 登用을 薦擧制에 의존토록 하자는 것은 高麗에서 科擧制와 蔭敍制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과감한 見解라고 하겠다. 그러나 白文寶는 孔子의 ‘그대가 아는 人物을 薦擧하라’는 말을 引用하면서 이러한 主張을 開陳하였고, 또한 10科의 區分에 의한 薦擧는 司馬光의 獻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던 만큼⁽¹²⁶⁾, 그는 中國의 古制를 理想으로 보면서, 宋儒의 政策論을 援用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그가

(123) 閔賢九, 「辛曉의 執權과 그 政治의 性格」上, 『歷史學報』38, 1968, p. 48. 및 『高麗史』世家 38, 恭愍王 元年 2月 丙子.

(124) 金成俊, 「高麗政房考」, 『史學研究』13, 1962.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1985, pp. 214~217.

(125) 白文寶가 典理判書에 임명되는 것은 恭愍王의 即位 直後에 최초로 斷行된 人事移動에서였다고 생각되지만, 『高麗史』에서는 宰權과 代言級 以上の 경우만을 수록하고 있다(『高麗史』世家 38, 恭愍王 即位年 11月 乙亥).

(126) 司馬光의 獻議에 보이는 十科와 白文寶의 十科는 거의 비슷하나 科目의 順序와 表現이 서로 다른 점이 많고, 내용에도 多少 차이가 있다(金成俊 「高麗史 選擧志 譯註(一)」, 『湖西史學』, 1, 1977, p. 125).

司馬光의 獻議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性理學의 受容과 더불어 宋의 制度와 文物에 대한 關心이 다시 높아지는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¹²⁷⁾

이처럼, 中國의 古制를 念頭에 두고, 과감한 變革을 주장하였지만, 白文寶의 立場은 高麗의 現實을 是認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薦舉制에 입각하여 薦舉權을 行使할 수 있는 三品以上の 職事官과 六品以上の 侍從官 가운데에는 附元輩를 비롯해 온갖 사람들이 망라될 터이지만, 그들의 存在를 일단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政房의 대두에 대해서도 ‘政貴變通 酌古準今者’라 하여 現實로 받아들이고 있다.⁽¹²⁸⁾ 白文寶는 어디까지나 당시 高麗의 現實을 既定事實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改革을 주장하였으며, 그 改革 자체는 中國 古制의 精神에 立脚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白文寶는 恭愍王 원년 8월에 書筵官으로 임명되었다. 王에게 주로 儒敎經典을 강의하여 君主로서의 稟性和 識見을 갖추게 하는 經筵의 制度는 睿宗때에 宋으로부터 導入되었으나, 武臣執權期의 廢絶 상태를 거쳐, 駙馬國體制下에 書筵이라는 名稱으로 再開되어 忠穆王때부터 多小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는데⁽¹²⁹⁾, 이때 恭愍王이 即位後 처음 書筵을 열고 16名の 書筵官을 임명했던 것이다.

開書筵 以寧川府院君 李凌幹 金海府院君 李齊賢 福昌府院君 金永熙 漢陽府院君 韓宗愈 延安府院君 印承旦 前僉議政丞 李君佺 政丞致仕 孫琦 前贊成事 許伯 金資 安山君 安震 菁川君 鄭乙輔 永昌君 金承澤 永山君 張沆 樂浪君 李遷善 密直副使 安牧 典理判書 白文寶 更日侍讀(『高麗史』世家 38, 恭愍王 元年 8月 己未)

위의 기록에 나타나는 書筵官의 面貌를 살펴보면, 科擧 合格者인 李齊賢, 韓宗愈, 李君佺(岳), 許伯, 安震, 鄭乙輔, 張沆, 安牧, 白文寶의 9人⁽¹³⁰⁾ 이외의 사람들은 書筵에서 儒學을 進講하기에는 적절한 존재가 아니었다. 특히 蒙古人으로 齊國公主의 怯伶口였던 印侯의 아들 印承旦⁽¹³¹⁾이나, 忠肅王의 嬖幸으로 燕京에서 恭愍王을 隨從했던 孫琦⁽¹³²⁾ 같은 사람은 儒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들은 무슨 理由로 書筵官이 되었는가. 앞에 제시한 書筵의 開設을 알리는 記事에 뒤이은 王의 敎書에,

元老大臣 大夫士 輪次入侍 進講經史法言 凡權勢所奪田宅奴婢 積年之訟 與夫冤滯之獄 其審治之

라 하였으니, 書筵은 經史의 進講에 국한되지 않고, 奪取당한 田民의 獄訟에 대한 문제도 審治

(127) 宋制의 參用에 대한 記事는 高麗前期에 많이 나타나지만, 武臣執權期를 거치면서 특히 蒙古干涉期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28) 崔氏武臣政權 시대에 이루어지는 政房의 설치는 李齊賢 이래 한결같이 否定의으로 파악되어 왔다(『樸翁稗說』前集 1).

(129) 權延雄, 「高麗時代의 經筵」(『慶北史學』 6, 1983, pp. 11~13) 및 註(91) 참조.

(130) 李齊賢, 韓宗愈, 李岳, 張沆, 白文寶는 『高麗史』列傳 22~25에 立傳되어 있고, 許伯과 安牧은 『高麗史』列傳 18의 許珙傳과 安珣傳에 각각 附傳되어 있다. 安震에 대하여는 『高麗史』選舉志 1, 科目 1, 選場, 忠肅王 5年 8月條 참조. 鄭乙輔에 대하여는 『新增東國輿地勝覽』 30, 晉州牧 人物條 및 『高麗史』選舉志 2, 科目 2, 國子試之額, 忠肅王 7年 8月條 참조.

(131) 『高麗史』列傳 33, 印侯傳 附 印承旦傳.

(132) 『高麗史』列傳 37, 孫琦傳.

하라는 것이다. 요컨대, 恭愍王은 儒學者 출신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밖의 영향력 있는 元老들까지도 망라하여 書筵官으로 임명하고, 거기에서 書筵 본래의 기능을 넘어 改革政治를 추진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던 셈이다.⁽¹³³⁾ 白文寶가 典理判書라는 가장 낮은 地位를 지나고 書筵官의 末席을 차지한 것은, 恭愍王의 改革政治 試圖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존재로서의 白文寶와의 관계를 示唆해 준다고 하겠다. 아마도 儒敎經典의 강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적인 田民의 奪取를 바로잡기 위해 설치된 田民辨整都監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에 力點을 두고 설치되었으리라고 여겨지는 書筵에, 白文寶는 幹事하는 임무를 띠고 참여하였고, 이에 그의 整治官으로서의 경험이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恭愍王의 제 1차 改革政治라 할 수 있는 그 即位初의 變革은 젊은 王의 意欲을 바탕으로 하고, 종래부터 高麗社會의 改善의 필요성을 切感하였던 儒學者 세력의 同調아래 制限된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 白文寶가 한 역할은 적지 않은 것이었으며, 그가 발탁되고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사실은 恭愍王의 改革政治가 적어도 整治都監의 改革活動과는 繼起的 관계를 갖고 시작됨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恭愍王의 첫 改革試圖은 挫絶되고 말았다. 權門世族의 반발이 컸고⁽¹³⁴⁾, 특히 恭愍王의 一等待從功臣이며 元과 緊密했던 有力者 趙日新이 亂을 일으킴으로써⁽¹³⁵⁾ 恭愍王 即位初의 政治의 基調가 근본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白文寶도 恭愍王 원년 10월에 典理判書에서 물러났다.⁽¹³⁶⁾ 그 후 약 5년간 白文寶의 活動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恭愍王 5년(1356) 5월부터 7월에 걸쳐 획기적인 反元運動이 일어나고 대규모 改革이 시도되었다.⁽¹³⁷⁾ 恭愍王의 第2次 改革政治라 부를 수 있는 이 變革은 두 段階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¹³⁸⁾ 첫 단계는 劇적으로 奇徹, 盧頊, 權謙 등 親元勢力을 誅殺하고, 元의 征東行省理問所를 혁파하고, 軍隊를 동원하여 雙城總管府를 공격한 것으로, 5월 21일에 감행되었다. 이것은 당시 高麗 政界를 席卷하면서 恭愍王의 지위를 위협하던 奇徹 등을 非常手段으로 除去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高麗內의 親元勢力의 集結處와도 같은 征東行省理問所를 폐쇄시키는 한편, 우려되는 元의 介入을 적극적 방법으로 차단시킨 것이니, 事前에 은밀하게 계획되었다가 一時에 이루어진 政變의 성격이 강한 措置였던 것이다. 둘째 단계는, 뒤이어 6월 26일에 至正年號의 사용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龍大한 改革을 試圖하고, 7월 9일에는 官制改革을 단행하여 文宗 때의 상태로 還元시키는 것으로, 첫 단계의 措置를 發展 完結시키는 自主的 改革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133) 權延雄, 「高麗時代의 經筵」, 『慶北史學』 6, 1983, p. 16.

(134) 書筵官에 임명된 印承旦과 金永熙가 田民辨整都監의 폐지를 要請한 것이 그 著例이다(『高麗史節要』 26, 恭愍王 元年 8月).

(135) 『高麗史』 世家 38, 恭愍王 元年 9月 乙亥 및 『高麗史』 列傳 44, 趙日新傳.

(136) 『高麗史』 世家 38, 恭愍王 元年 10月 壬子條의 人事移動에는 李達喪과 全普門의 典理判書 補任이 보이는데, 이것은 白文寶의 退任을 뜻한다고 여겨진다.

(137)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的 性格」 上, 『歷史學報』 38, 1968, pp. 49~51.

(138) 閔賢九, 「益齊 李齊賢의 政治活動」, 『震檀學報』 51, 1981, p. 238.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바뀐 政治狀況 아래에서 國家的 政策으로 추진된 것이기도 했다.

前者의 경우, 恭愍王과 政治的 利害關係가 切實했던 小數의 人物이 事前의 謀議에 가담하여 적극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은 뒷날 誅奇轍功臣으로 책봉되었다.⁽¹³⁹⁾ 그러나, 後者의 경우는 誅奇轍功臣에 들지 않는 광범위한 人物까지도 干與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忠穆王 때의 整治都監의 改革活動이나 恭愍王 即位初의 第1次 改革政治 試圖를 통해 看取할 수 있었던 것처럼, 儒學者들을 主軸으로 하여 現實을 改善하려는 政治勢力이 改革에의 움직임을 뒷받침해 왔던 것인데, 이때에 反改革의인 親元勢力을 去勢시킨 다음 恭愍王의 主導 아래 改革이 추진되었던 만큼, 종전의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關心을 갖고 同調할 수 있었을 것이다. 政房의 革罷를 건의하여 改革의 內容에 포함되게 한 李穡⁽¹⁴⁰⁾이나, 이 變革에 뒤이어 門下侍中이 되어 事態의 수습에 기여하는 李齊賢⁽¹⁴¹⁾도 물론 이 改革에 干與한 셈이다. 기본적으로 恭愍王 5년 6월에 發布된 약 30項의 改革案이 整治都監의 그것과 相通되는 바가 많다고 여겨지며⁽¹⁴²⁾, 따라서 어느 면에서는 整治都監의 改革活動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이때의 改革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恭愍王의 第2次 改革政治에 白文寶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가 종전까지의 입장이나 활동에 비추어 이 變革에 同調하고 參與하고자 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말해 주는 記事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高麗史 列傳 23, 李齊賢傳 에는,

齊賢嘗病國史不備 與白文寶·李達忠 作紀年傳志 齊賢起太祖至肅宗 文寶·達忠撰睿宗以下 文寶僅草睿仁二朝 達忠未就業 南遷時皆散逸 唯齊賢太祖紀年在

라 하여, 白文寶가 李齊賢의 主導 아래 시도된 國史의 編纂에 李達衷과 함께 참여하였음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恭愍王 6년경부터 10년까지 약 4년간에 걸친 일을 뜻한다고 여겨진다.⁽¹⁴³⁾ 요컨대, 白文寶는 획기적인 恭愍王의 第2次 改革政治가 시도되어 高麗의 政局이 여전히 激動 속에 있는 恭愍王 6년경부터 高麗國史 편찬의 任務를 떠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의 國史編纂은 高麗後期를 통하여 계속되는 國史에 대한 關心의 一端을 알려주지만, 실제로는 恭愍王의 第2次 改革政治를 계기로 착수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⁴⁴⁾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李齊賢이며, 그의 門生인 白文寶와 그의 堂姪인 李達衷(忠)이 참여하게 된 데

(139)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의 性格」上, pp. 51~53.

(140) 李穡, 「解嘲吟」, 『牧隱詩集』 4(『高麗名賢集』 3, p. 270).

(141) 閔賢九, 「益齊 李齊賢의 政治活動」, pp. 236~237.

(142) 恭愍王 5년 6월에 發布된 改革案은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의 性格」下, (『歷史學報』 40, 1968, pp. 113~116)에 一覽表로 작성된 바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과 성격은 따로이 검토하고자 한다.

(143) 金哲煥, 「益齊 李齊賢의 史學」(『東方學志』 8, 1967. 『韓國古代社會研究』, 1975, pp. 428~429)에서는 이것을 '恭愍王 6년경'으로 잡고 있는데, 紅巾賊 侵入으로 開京이 함락될 때까지 계속되는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4) 反元運動으로 인한 高麗의 自主性 회복이 國史編纂의 필요성을 高調시켰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에는 李齊賢의 意思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反元自主的 變革을 통해 시도된 國史編纂에 臨하는 立場은 한결같이 그 改革政治를 承認하고 受容하는 것임이 분명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恭愍王의 第2次 改革政治에 대하여 國史編纂이라는 별도 次元에서의 역할을 통해 그것에 同參할 수 있었던 白文寶의 立場을 示唆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2) 中期의 새로운 改革의 嚮源

恭愍王의 第2次 改革政治는 反元運動이라는 側面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高麗의 政治의 自主性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龐대한 改革의 試圖은 궁극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동안 격화된 政治의 社會的 모순이 섬사리 해결되기 힘들었으며, 특히 恭愍王 8년부터 시작되어 恭愍王 10년에는 開京을 함락시키기에 이르는 紅巾賊의 침입이 결정적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¹⁴⁵⁾ 그리하여 改革政治는 좌절되고 恭愍王의 地位는 不安한 局面을 맞이하게까지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면서 恭愍王이 第3次 改革政治를 추진하는 것은 그 14년 5월 辛旽을 등용하면서였다. 이에 이르기까지, 內外의 難局에 당면한 高麗와 恭愍王을 위하여 盡力한 白文寶의 활약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恭愍王 10년 10월에 紅巾賊의 대대적인 再侵으로 王은 開京을 버리고 福州(安東)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白文寶는 이때에 王을 扈從하면서 政治의 表面에 등장하는데, 官職도 密直提學에 올라 宰樞의 班列에 오르는 것이다.⁽¹⁴⁶⁾ 大戰亂을 맞아 首都가 함락되기에 이른 상황에서 大規模의 用兵이 초래한 三元帥 殺害 사건과 같은 政治的 變亂이 생기고, 國家의 統治體制 전반이 크게 동요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가운데 白文寶는 高麗 朝廷을 安定시키고, 民心을 수습하는 데에 致力했다.

紅巾賊을 격퇴시키고 開京이 收復되자, 遷都에 앞서 一部 宰樞가 留都宰樞로 파견되어 亂後의 混亂을 수습하게 되었는데, 白文寶도 王命을 받고 開京에 가서 同參하게 되었다.⁽¹⁴⁷⁾ 이때 史庫가 파괴되어 實錄이 散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留都宰樞는 恭愍王 11년 10월 淸州의 行在所에 上啓하여 史官을 파견해서 實錄을 收貯하게 하였다. 朝廷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史官 郭樞를 보내어 實錄을 海印寺에 移置하도록 命하였다. 이에 白文寶는 亂이 鎮定된 직후에 갑자기 國史를 옮기는 것은 人心을 不安하게 한다는 理由로 反對하여 郭樞의 實錄 移送를 中止시키고, 行在所로부터의 後命을 기다리게 하였는데, 결국 이 일은 白文寶의 뜻대로 歸着되었던 것이다.⁽¹⁴⁸⁾

(145)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의 性格」下, 『歷史學報』 38, 1968, pp. 54~59.

(146) 白文寶의 官職은 恭愍王 元年의 典理判書 在任 기사가 나타나다가 恭愍王 11년의 密直提學 職銜이 보일 뿐, 그 사이의 10년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동안 父母의 喪을 당하여 仕宦할 수 없었던 기간을 想定하여라도 記錄의 누락이 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白文寶의 密直提學 승진은 적어도 恭愍王 10년 말로부터 11년 초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7) 『高麗史』 世家 40, 恭愍王 11年 3月 丁巳 및 『高麗史』 列傳 25, 白文寶傳.

(148) 『高麗史』 世家 40, 恭愍王 11年 10月 乙亥 및 『高麗史』 列傳 25, 白文寶傳.

이보다 앞서, 8월에 恭愍王은 福州로부터 尙州를 거쳐 淸州에 到着하여 行在所로 삼고, 開京으로의 遷都가 이루어질 때까지 머무르게 되었다.⁽¹⁴⁹⁾ 바로 이때 元은 使臣을 보내어 王에게 衣酒를 下賜하여 紅巾賊을 攻滅한 功을 높이 사면서 아울러 紅巾賊의 餘黨을 挾擊할 것을 당부하였다.⁽¹⁵⁰⁾ 高麗는 恭愍王 5년의 획기적인 反元運動을 통하여 元의 政治的 干涉을 차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紅巾賊의 침입으로 인한 커다란 危機가 예상되자, 高麗는 元과의 緊張關係를 해소시키고, 軍事的인 連衡을 꾀할 목적으로 政策을 바꾸어 元에 使臣을 보내어 高麗의 간절한 뜻을 傳하고 征東行省官을 復置한 바 있었다.⁽¹⁵¹⁾ 이에 대하여 元이 友好的 태도를 보이면서 對應해온 것이 곧 이번의 元使來到와 衣酒下賜였다. 이것을 계기로 高麗는 元과의 關係를 한층 더 強化시키어, 恭愍王 5년 以前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姿勢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高麗史』世家 40, 恭愍王 11년 9월 辛酉條에는,

遣僉議商議 姜之衍 如元 賀正 典理判書 李瑞龍 賀千秋節 幸北亭拜表 遂登拱北樓 命文臣和板上詩韻

이라 하여, 姜之衍과 李瑞龍을 각각 元正과 千秋節을 慶賀하기 위하여 使臣으로 元에 파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특히 王이 北亭에 行幸하여 拜表의 의식을 거행하고, 拱北樓에 올라 文臣들에게 命하여 板上의 詩에 次韻하게 했음을 덧붙이고 있다. 바로 그 뒷부분의 記事가 高麗의 元에 대한 특별한 事大의 姿勢를 함축하는 것이다.

淸州의 北亭에 있는 拱北樓는 北을 향하여 拱手한다는 명칭이 뜻하는 바와 같이 開京의 高麗朝廷에 대한 철저한 臣服을 상징하는 樓臺이었다.⁽¹⁵²⁾ 그런데, 遷都中의 高麗朝廷이 이곳에 머물면서, 君臣이 元에 보내는 賀正表에 拜禮하고 오른 拱北樓는 高麗가 北의 元에 대하여 拱手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때에 王이 隨從한 文臣들에게 拱北樓에 대하여 前에 權漢功이 지은 것⁽¹⁵³⁾에 次韻하여 詩를 짓게 한 바도 高麗의 親元政策으로의 旋回를 內外에 확실하게 하면서 君臣의 和合을 꾀하려는 계획된 行事였다고 생각된다.

그 무렵 白文寶는 開京에 있었으므로 拱北樓의 詩會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에 行在所인 淸州에 돌아온 白文寶는 당시 王의 寵臣으로 政治權力의 核心에 위치하였던 柳淑으로부터 拱北樓의 應製詩들을 모아 鑲板하려고 하니 그 序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¹⁵⁴⁾ 이

(149) 御駕가 淸州에 도착하는 것이 恭愍王 11년 8월 壬辰이요, 淸州를 떠나는 것은 翌 12년 2월 乙亥이니(『高麗史』世家 40) 6개월간 淸州가 臨時首都였던 셈이다. 그동안 淸州에서 科擧 시험이 치루어지기도 하였다.

(150) 『高麗史』世家 40, 恭愍王 11년 8월 乙未, 庚戌.

(151) 『高麗史』世家 39, 恭愍王 10년 9월 庚申, 癸酉.

(152) 『新增東國輿地勝覽』15, 淸州牧, 樓亭, 拱北樓.

(153) 權漢功은 忠宣王의 信任을 받다가 뒤에 瀋王派에 가담한 사람인데, 都僉議政丞에까지 올랐다가 忠惠王 원년에 죽하였다(『高麗史』列傳 38, 權漢功傳). 그의 拱北樓를 읊은 詩는 『新增東國輿地勝覽』15, 淸州牧, 樓亭, 拱北樓條에 실려 있다.

(154) 柳淑은 科擧合格者로 燕京에서 恭愍王을 隨從하여 그 即位後 燕邸侍從一等功臣으로 封해졌고, 恭愍王 5년에는 誅奇勲一等功臣으로 封해지는 등 恭愍王 주변의 最高 功臣이며, 代言으로 機務를 參典하고, 紅巾賊侵入 때에 南遷을

에 그는 應製詩序를 지어 拱北樓에서 詩會가 열리게 된 經緯와 자기가 序를 쓰게 된 事情을 밝힌 다음, 끝으로 그 意義에 言及하여,

昔者 君臣廣歌 固是昇平製作 而去年奔亂以還 豈謂有今日勝事於乎 吾王事大敎命之誠 與名拱北而可表者 不在斯樓歟

라 하면서 끝맺고 있다. 이 詩會를 勝事라 하면서, 恭愍王의 元에 대한 至誠 事大를 拱北樓의 명칭에 전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序에 뒤이은 白文寶의 五言詩는 다음과 같다.

拱北名雖舊 吾王敎命初
氛埃今已掃 雲物正當書
宸極瞻依遠 川原向背虛
斯民知所感 實在一人予

이 詩는 恭愍王의 元에 대한 事大의 자세를 드러내면서, 紅巾賊이 격퇴되고 高麗와 元 사이에 원활한 관계가 회복된 것임을 말한 다음, 그러나 元은 仰慕하고 의지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으니, 百姓들은 모든 責任이 恭愍王에게 지워져 있다⁽¹⁵⁵⁾고 본다는 內容인 것 같다. 요컨대, 白文寶는 序와 詩를 통해서 恭愍王의 元에 대한 事大를 부각시켰지만, 궁극적으로는 쇄퇴의 조짐이 커가는 元에 의지하기 보다 恭愍王의 意志대로 高麗를 이끌어가야 할 것임을 示唆하였던 셈이다. 당시 高麗는 內외의 情勢變化때문에 恭愍王 5년의 反元運動으로 얻은 自主性を 크게 손상당하면서 親元政策으로 旋回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것을 拱北樓의 詩會로 闡明하였으며, 다시 그 應製詩들을 收合하여 鑲板함에 있어서 특별히 白文寶에게 序를 부탁하였던 바, 그는 詩會가 뜻하는 바를 十分 살려서 王의 元에 대한 事大를 크게 드러내면서도 은근히 恭愍王의 독자적인 政策路線을 추구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拱北樓의 詩會에는 李岳, 李齊賢, 洪彥博을 포함하는 多數의 老少文臣들이 참가하여 25인이 詩를 남기게 되었음⁽¹⁵⁶⁾에도 불구하고, 뒤에 白文寶를 따로 불러 序를 짓도록 한 것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高麗 朝廷에서의 그의 높은 信望을 뜻한다고 여겨진다. 白文寶는 이때 60세의 老熟한 學者요, 政治家였다.

「拱北樓應製詩序」를 지은 데 이어서 白文寶는 時政을 論하는 劄子를 올렸다.⁽¹⁵⁷⁾ 行宮이 淸州에 있는 상태에서 올려진 이 劄子は 『高麗史』 撰者가 8條項으로 나누어 各志에 ‘恭愍王 十一年 密

決策하는 등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던 人物인데, 이 무렵 官職은 評理로서 宰臣의 班列에 있었다(『高麗史』 列傳 25, 柳淑傳).

(155) 위 詩의 마지막 句節의 「一人予」는 「予一人」을 韻에 맞추기 위해 倒置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予一人」은 天子를 뜻하나, 여기에서는 恭愍王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156) 『新增東國輿地勝覽』 15, 淸州牧, 樓宇, 拱北樓條에는 이때 詩會에 참석한 元松壽, 李穡, 成士遠, 洪彥博, 李岳, 李齊賢, 黃石奇, 柳淑, 金漢龍, 禹吉生, 李岡, 廉興邦, 田祿生, 崔龍, 權鑑, 朴仲美, 金君鼎, 華之元, 禹玄寶, 李範, 韓昉, 曹繼芳, 許佳, 田得良, 李邦直 등 25인의 詩가 실려 있다.

(157) 이 劄子를 올린 時期가 『高麗史』에는 恭愍王 11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編年’에는 이 해 12월로 明示되어 있다.

直提學白文寶上劄子曰'이라 하여 分載하고 있다. 『淡庵集』에는 分載된 『高麗史』各志의 條目名을 따서 「論銓注」, 「論農桑」, 「論鹽法」, 「論借貸」, 「論祿俸」, 「論租稅」, 「論商賈」라 하여 7項目만을 들고 있지만, 그것은 「論經理」라 할 수 있는 1項目을 누락시킨 때문이다. 이 劄子は 銓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財政・經濟에 대하여 論及한 것들인데, 이는 당시 紅巾賊亂을 겪은 渦中에서 심각했던 民生問題와 國家財政問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劄子は 各項目마다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古今의 中國事情을 많이 引用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그 內容과 性格은 다르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¹⁵⁸⁾ 아 물론, 紅巾賊의 침입으로 首都가 함락되어 아직 王의 還宮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混亂된 상태에서, 經濟・財政 관계의 구체적이며 적절한 問題들을 들어 政策建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통하여 政治家로서의 白文寶의 새로운 面貌를 接할 수 있다.

恭愍王 12년 2월에 高麗는 開京으로 還都하였다. 바로 이때 興王寺亂이 발생하였으며, 恭愍王은 宦官의 도움으로 겨우 弑害당하는 것을 謀免할 수 있었다. 그러나, 右政丞 洪彥博이 殺害되었고, 이어서 恭愍王 側近의 有力者 金鑄이 이 亂의 主謀者임이 밝혀져 去勢당하는 등 高麗의 政情은 매우 不安定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元은 恭愍王을 廢位시키고, 德興君을 高麗王으로, 奇三寶奴를 元子로 임명하였으며, 이 소식이 이 해 5월에 傳하여졌고, 13년 1월에는 元의 軍士 1萬名이 德興君을 奉戴하고 鴨綠江을 건너 오는 것이다.⁽¹⁵⁹⁾ 그 동안 倭寇의 침입이 더욱 격화되고, 大陸情勢의 변화에 따라 女眞의 침입도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¹⁶⁰⁾

이 무렵에 白文寶는 지금까지 쌓은 經驗, 識見 및 思想을 함축하는 중요한 上疏文을 올린다. 그는 淸州 行在所에서 「拱北樓應製詩序」를 짓고, 時政을 論하는 劄子를 올린 다음, 政堂文學으로 승진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¹⁶¹⁾, 朝廷과 함께 還都했다가 興王寺亂이 일어나 高麗가 커다란 혼란과 불안에 빠져 試鍊을 겪게 되자 12년 4월경에 다시금 上疏文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¹⁶²⁾

이 上疏文은 뒷 部分이 缺落된 채 『淡庵集』에 「斥佛疏」란 題名으로 수록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高麗史』 白文寶傳에 올라 있는데, 좀 장황하지만 『淡庵集』에 있는 그 全文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부분은 『高麗史』 白文寶傳에서는 省略되었음).

(158) 註(44), (80)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이것 역시 別稿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59) 『高麗史』 列傳 44, 崔濡傳 및 『高麗史節要』 28, 恭愍王 13年 正月.

(160) 『高麗史』 世家 40, 恭愍王 12年 4月 己未 및 同王 13年 正月 庚辰.

(161) 白文寶가 이때 政堂文學으로 승진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이지만 確實性은 없다. 첫째, 恭愍王 12년 7월에 그는 門下贊成事 致仕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때 密直提學에서 上級의 官位로의 승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그는 政堂文學이라는 職銜과 연관이 커서, 「編年」에는 恭愍王 元年에 典理判書가 되면서 政堂文學에 오르는 것으로 잘못 記錄되어 있으며, 뒷날 恭愍王 22년 致仕의 상태에서 다시 現職인 政堂文學의 職에 나아가는데, 이는 그의 致仕以前 最高의 地位가 政堂文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162) 이 上疏文이 올리는 時期를 推定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그 내용 가운데 있는 '今當喪亂之後 民不聊生 宜霽寬恩 以惠遺黎'란 句節인데, 喪亂이란 興王寺亂으로 首相 洪彥博이 피살당하여 喪事를 치루고 混亂을 겪는 것을 뜻하며, '寬恩'이란 租稅의 減免과 같은 恩典을 가리키므로, 恭愍王 12년 閏3월의 興王寺亂과 같은 해 5월의 百姓들에 대한 恩典을 포함하는 改革의 施策 사이의 어느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伏以〕國家世守東社 文物禮樂 有古遺風 不意寇患屢作 紅巾陷京 乘輿南狩 言之 可謂痛心 今當喪亂之後 民不聊生 宜霽寬恩 以惠遺黎 且天數循環 周而復始 七百年爲一小元 積三千六百年爲一大周元 此皇帝王霸理亂興衰之期 吾東方 自檀君至今 已三千六百年 乃爲周元之會 宜遵堯舜六經之道 不行功利禍福之說 如是則上天純祐 陰陽順時 國祚延長 願念睿廟置清燕寶文故事 講究天人道德之說 以明聖學 且鄉曲皆正 則國家可理 唐鄭置大中正 國初亦置事寮 今宜大小州郡 復置事寮 糾察非違 新羅始崇佛法 民喜出家 鄉驛之吏 悉逃徭賦 士夫有一子 亦皆祝髮〔至于近年 其弊尤甚 媚君害民 惑世蠹財 而在朝之臣 無一直言 以非爲是 以不肖爲賢 天變屢警 人心動搖 此政恐懼修省之不暇 而不思消弭 反倡異教 邦家之覆 不難矣〕自今 官給度牒 始得出家 三丁不足者 并不聽〔此下缺〕⁽¹⁶³⁾

이 上疏文도 정밀한 分析이 요망되는 것이지만, 우선 그 主旨를 살펴보면,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高麗의 歷史의 傳統의 강조이다. 上疏文의 첫 句節부터 ‘世守東社’의 내력과 독자적 文化를 들고 있을 뿐 아니라, 檀君紀元說⁽¹⁶⁴⁾까지 거론하면서 東아시아 세계에서 오랜 歷史와 독자적 傳統을 지녀온 高麗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있다. 白文寶는 恭愍王 6년경부터 國史編纂에 참여함으로써 高麗의 歷史와 文化에 대한 이해를 深化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당시의 高麗가 大變革期에 處해 있다는 認識이다. 恭愍王 5년의 反元運動 이래 高麗가 경험한 内外의 情勢變化와 激動은 엄청난 것이었으며, 특히 紅巾賊의 侵入으로 開京이 陷落되면서부터 興王寺亂에 이르기까지 變轉된 政治狀況과 社會의 破滅상은 누구에게나 극도의 當황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白文寶는 周易의 原理와 檀君紀元說에 입각하여, 高麗가 겪고 있는 試鍊이 大變革期를 맞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밝히고,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政治를 통해 극복되어 ‘國祚延長’의 결과로 귀착될 수 있음을 主張한 것이다.

세째로, 佛教에 대한 批判과 儒敎의 政治理念의 遵守를 강조하는 立場이다. 그의 佛教批判은 理論上으로는 그 功利禍福之說의 不當性에, 現實的으로는 壯丁의 出家祝髮로 인한 賦役의 逃避와 佛事에의 喜捨로 인한 官民의 財産上 損失에 초점을 둔 것이었지만, 佛教를 異敎라 지칭하며, 國家를 顛覆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 한 데에서 積極의 立場을 살필 수 있다. 한편, 그가 堯舜六經之道, 天人道德之說이라 말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儒敎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것을 聖學이라 하여 佛教라는 異敎와 對比되는 表現을 쓴 데에서 儒敎正統論者로서의 白文寶의 面貌를 살필 수 있다.⁽¹⁶⁵⁾ 그러나, 그가 睿宗代 高麗儒學의 傳統을 계승할 것을 주장한 것은 주목되는 바이다.

네째로 敎民策의 實施를 포함하여 새로운 施策을 펼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다. 亂을 겪은 百

(163) 『淡庵集』에는 이 上疏文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此下缺’이란 표시가 있는 경우들이 보이는데, 이 文集의 편찬을 검토할 때 留意할 바라고 하겠다.

(164) 이 上疏文에서 白文寶는 檀君紀元 3600년이라고 하므로, 上疏文을 올리는 해가 推定대로 恭愍王 12년(癸卯, 1363)일 경우, 檀君의 開國이 B.C. 2237년이 되고, 만약 恭愍王 13년(甲辰, 1364)일 경우, 檀君의 開國이 B.C. 2236년이 되어, 『三國遺事』, 『帝王韻記』, 『世宗實錄地理志』의 紀年과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白文寶의 檀君紀元說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을 것인가는 後考를 要한다고 하겠다.

(165) 『高麗史』列傳 25, 白文寶傳에서는 그를 ‘不惑異端’이라 하였고, 權近, 『鄭三峰文集序』(『陽村集』 16)에서는 ‘淡庵白公關異端尤力焉’이라 하여 白文寶의 性理學에 대한 큰 기여는 ‘關異端’ 부문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上疏文과 더불어 그의 生活態度에서 나온 평가일 것이다.

姓들에게 寬恩을 베풀라는 것 以外에는 事審官의 復置와 철저한 度牒制의 시행만이 提示되어 있지만, 이 上疏文의 缺落된 뒷 부분에는 다른 建議가 들어 있을 可能性이 크다. 요컨대, 구체적인 政策을 세워서 高麗社會의 現實問題에 대처해나가라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白文寶의 上疏는 매우 前向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高麗가 처해 있던 상황과 白文寶의 位置와 上疏文의 內容을 고려해볼 때, 이것은 高麗의 君臣에게 큰 勇氣를 북돋아 주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선 恭愍王 12년 5월에 敎書를 통해 下達되는 各方面에 걸친 改革的 施策⁽¹⁶⁶⁾은 白文寶의 上疏로 유발되었으리라 여겨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推測을 한다면, 恭愍王 14년 5월에 착수되는 第3次 改革政治는 이 上疏에 크게 힘입어 시도되었으리라는 것이다.

白文寶는 問題의 上疏를 올리고 官職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恭愍王 12년 7월 당시 그의 職銜은 ‘忠謙贊化功臣·重大匡·門下贊成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致仕·稷山君’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興王寺亂이 발생하는 복잡한 政情 속에서 이 上疏를 올리면서 61세의 나이로 現職에서 물러날 것을 强請하였고, 이에 恭愍王이 그를 각별히 우대하여 贊成事로 致仕시키며 稷山君으로 封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⁶⁷⁾ 恭愍王은 德興君을 奉戴한 元軍士의 침입에 대하여 軍事의 정면 대결을 하여 격퇴시키고, 마침내 恭愍王의 복위를 알리는 元의 使臣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13년 10월), 倭寇 및 女眞과의 抗爭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辛旽을 登用하면서 第3次 改革政治를 시도하였다.⁽¹⁶⁸⁾ 지금까지의 改革的 좌절에 굴하지 않고, 恭愍王 5년의 反元運動으로 확립된 自主性을 지키면서, 커다란 轉換期의 變動을 高麗의 中興에 연결지운다는 포부 아래 새로운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새로운 改革政治는 僧侶인 辛旽의 執權을 통하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佛敎의 批判에 철저했던 白文寶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때 새로이 成均館이 重營되어 儒學의 振興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性理學의 發展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¹⁶⁹⁾은 留意해야 할 바라고 하겠다. 그리고 田民辨整都監의 설치를 통한 改革的 시책⁽¹⁷⁰⁾은 恭愍王이 即位以來 계속 시도하여 온 政治的 社會的 모순의 해결책인 동시에 적극적 救民策이기도 하였다. 白文寶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恭愍王이 새로이 改革政治를 펼치게 되었다는 明證은 없지만, 大體

(166) 『高麗史』世家 40, 恭愍王 12년 5월 庚午條의 敎書와 『高麗史』의 各志에 있는 恭愍王 12년 5월의 下敎는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커다란 變亂을 겪은 후에 人心收拾을 위해 내려진 改革的 施策이었다. 各志에 分散되어 있는 것들은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의 性格」下(『歷史學報』40, 1968, pp.113~116)에 함께 收載되어 있다.

(167) 「懷翁語錄序」의 末尾에 ‘至正二十三年秋七月有日 忠謙贊化功臣·重大匡·門下贊成事·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致仕 稷山君 淡庵 白文寶序’라 기록되어 있는데, 至正二十三年은 곧, 恭愍王 12년(1363)이다. 「行狀」에는 恭愍王 11년 時政割子를 올린 다음에, 「編年」에는 同 11년 9월 還都後에 門下贊成事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不正確한 것이다. 後者의 경우 還都의 時期를 바로잡아 同王 12년 3월로 하면 사실과 가까워진다고 하겠다. 다만 致仕職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168)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의 性格」上, 『歷史學報』38, 1968, pp.71~73.

(169) 尹瑑均, 『尹文學士遺稿』, 1933, p.59.

(170)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의 性格」下, 『歷史學報』40, 1968, pp.63~66.

的으로 보아 紅巾賊亂 이후의 白文寶의 一連의 움직임과 특히 恭愍王 12년의 上疏는 政治的으로 상당한 비중을 갖고 改革을 종용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¹⁷¹⁾

3) 末期의 後嗣問題에의 介入

白文寶는 致仕한 다음 계속하여 開京에 머물면서 高麗의 政治의 推移를 지켜 보았다. 물론 辛旽이 등장하면서 새로이 시도되는 改革政治에 대하여도 커다란 關心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는 表面上으로는 輔仁堂⁽¹⁷²⁾을 열고 後學들을 敎誨하는 한가로운 生活을 하였지만, 內面的으로 高麗 朝廷의 動向을 注視하면서 때로는 중요한 發言을 하고, 때로는 글을 지어 王의 뜻을 外護하기도 하였다.

恭愍王 13년 10월 元이 恭愍王 廢立과 德興君 擁立의 主謀者였던 崔濡를 高麗에 執送해왔을 때, 白文寶는 그를 斬할 것을 請하였다.⁽¹⁷³⁾ 다음 해 겨울에는 恭愍王이 判三司事를 지낸 孫洪亮에게 賜仗한 것을 慶讚하는 士大夫들의 詩에 序를 쓰면서 白文寶는 王의 敬老를 은근히 칭찬하고 있는데⁽¹⁷⁴⁾, 이미 辛旽이 대두한 다음의 일이었다. 恭愍王 16년에는 倭寇가 西江에까지 미쳐서 人心이 흉흉해지자 恭愍王은 白文寶의 손을 잡고,

與卿講治道幾年 乃有今日耶⁽¹⁷⁵⁾

라고 탄식을 하였고, 이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元帥를 파견해 追捕토록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白文寶가 여전히 高麗朝廷 가까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恭愍王 18년에 이르러 白文寶는 동생 白文質과 더불어 開京의 官職世界를 떠나 ‘歸田’하여 ‘杜門自靖’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⁷⁶⁾ 이제 白文寶는 辛旽 執權下의 政治體制에 등을 돌리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變化와 관련하여 다음의 事實들이 주목된다. 우선, 恭愍王 17년 國子監試의 試官을 定하는 데 辛旽은 監察大夫 孫湧을 任用하려고 한 반면, 宦者 李剛達은 判典校寺事 李茂芳이나 權思復을 任用하려고 하여서 兩者가 경쟁하므로, 그것을 미워하여 王은 國子監試를 폐지하고 만 事件이 있었다.⁽¹⁷⁷⁾ 그런데, 宦者 李剛達이 추천한 李茂芳과 權思復은 金九

(171) 이 上疏文이 그 前向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朝鮮 建國을 主導한 新進文臣勢力에게 革命思想을 고취시켰을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檢討할 과제라 하겠다.

(172) 李崇仁의 다음과 같은 詩가 참고된다(『陶庵文集』卷3).

過淡庵先生故宅 先生扁其堂輔仁

罷相歸來講素王 樞衣曾入輔仁堂

如今報德嗟無地 敬爲公拈一瓣香

이 詩는 輔仁堂感懷란 題目으로 『淡庵集』附錄에도 실려 있다.

(173) 「行狀」이나 「編年」에는 崔濡立으로 나타나지만 崔濡의 잘못이다. 註(159) 참조.

(174) 「判三司事一直孫洪亮賜杖詩序」, 『淡庵集』2.

(175) 「行狀」참조.

(176) 「編年」참조.

(177) 『高麗史』選舉志 2, 科目 2, 國子監試.

容, 李崇仁, 尹紹宗과 더불어 白文寶의 門人錄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¹⁷⁸⁾ 다음으로, 恭愍王의 寵臣으로 有力者였던 柳淑이 辛旽의 執權과 동시에 瑞寧君으로 封해져 政治一線에서 물러났다 가 마침내 恭愍王 17년 12월에 辛旽의 계략으로 縊殺당하기에 이르렀다.⁽¹⁷⁹⁾

前者의 경우, 宦者 李剛達의 배후세력으로 白文寶가 반드시 관련되었으리라는 明證은 없지만 그의 門下生의 일에 끝내 無關하기는 힘들었을 터이고, 결국 辛旽과 대결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는 셈이 되어버리자, 白文寶는 크게 失望하고, 어떤 危機感까지 느꼈을지도 모른다. 後者의 경우는 柳淑이 白文寶와 切親했을뿐만 아니라, 恭愍王의 最高의 功臣이 부당하게 去勢되어 姦計로 비참하게 죽는 現實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그로 하여금 辛旽執權後 半期로 접어들 때 당시 高麗의 政治의 局面을 否定的으로 파악하고, 朝廷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으리라 여겨진다.⁽¹⁸⁰⁾

이렇게 하여 ‘杜門自靖’의 상태에 들어간 白文寶는 恭愍王 19년에 가장 친했던 親友 尹澤이 세상을 떠나자, ‘尹氏墳墓記’를 지으면서 그를 追念하였다.⁽¹⁸¹⁾ 그보다 3년 앞서 座主 李齊賢이 死去하여 吊問한 바 있는⁽¹⁸²⁾ 白文寶는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였을 것이다. 恭愍王 20년에 69세의 白文寶가 스승 白頤正의 行狀을 쓰는 것⁽¹⁸³⁾도 그에게 주어진 커다란 宿題를 생전에 해결한다는 기분에서였으리라 여겨진다. 그의 性理學 관계의 독자적 著書인 踐形⁽¹⁸⁴⁾이 이 무렵에 씌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白文寶의 恭愍王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恭愍王의 白文寶에 대한 커다란 信賴는 老年의 白文寶가 한번 더 政治의 활약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高麗社會의 현실을 改善하려는 意志에 바탕한 것이기도 하였다. 恭愍王 20년 閏3월에 王은 開京을 떠나 長湍에 行次하여 數日에 걸쳐 靖陵, 憲陵, 景陵을 參拜하게 되는데⁽¹⁸⁵⁾, 그곳에서 白文寶는 王을 拜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白文寶의 「洪武四年 駕行長湍 拜獻主上殿下」라는 詩를 통해 알 수 있거니와⁽¹⁸⁶⁾, 辛旽의 눈을 피하여 開京과 동떨어진 곳에서 恭愍王과 白文寶의 相面이 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辛旽은 沒落하였다. 추측컨대, 辛旽을 전적으로 信任하는 가운데 壅蔽되었던 恭愍王이 白文寶와의 相面을 통해 당시의 情況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마침내

(178) 『淡庵集』 3, 附錄, 門人錄.

(179) 李穡 「有元高麗國(中略)臨文僖柳公墓誌銘并序」, 『高麗名賢集』 3, p. 948.

柳淑에 대하여는 註(154)에서 言及하였다.

(180) 辛旽執權下의 恭愍王 第3次 改革政治는 恭愍王 18년경부터 여러가지 矛盾이 露呈되기 시작하였던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閔賢九, 「辛旽의 執權과 그 政治의 性格」下, p. 92.

(181) 「編年」 및 「尹氏墳墓記」, 『淡庵集』 2 참조.

(182) 「尹氏墳墓記」에 다음과 같은 文句가 보인다.

益齋 雖早年掌試 及年八十二(一의 誤) 下世 門生存者 才二三 公及龜谷在外 余獨執紼拜哭

(183) 「編年」 참조.

(184) 註(42) 참조.

(185) 『高麗史』 世家 43, 恭愍王 20年 閏3月 庚午, 壬申, 癸酉.

(186) 『淡庵集』 1.

辛旽의 沒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辛旽이 沒落한 다음 白文寶는 致仕者의 상태에서 政堂文學에 任命되어 다시 現職者가 됨으로써 政治의 表面에 나서게 되었다. 『高麗史』世家 44, 恭愍王 22년 7월 乙巳條에,

賜辛旽奴名禍 封爲江寧府院大君 百官賀 命政堂文學 白文寶 田祿生 大司成 鄭樞等 傳之

라 하여, 政堂文學 白文寶는 田祿生, 鄭樞와 더불어 江寧府院大君의 師傅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白文寶의 再登場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가 복잡한 恭愍王의 後嗣問題에 介入됨을 뜻하는 것이다.

恭愍王은 그 14년에 사랑하는 아내 魯國大長公主가 難産 끝에 死亡한 다음, 公主의 죽음에 대한 悲哀와 後嗣를 얻지 못한 데 대한 失望感으로 不安定한 精神狀態를 보여주는 일이 많았다.⁽¹⁸⁷⁾ 그런데, 辛旽을 伏誅시킨지 8일만에, 王은 자신이 辛旽의 집을 往來하다 그 婢僕과 관계하여 낳았던 아들이라 하여 辛旽의 아이를 太后殿에 들였다.⁽¹⁸⁸⁾ 이때 恭愍王은 ‘元子在 吾 無憂矣’라 하면서 일단 辛旽을 後嗣로 指目하였다.⁽¹⁸⁹⁾ 2년이 지나 王은 辛旽이 就學할 나이가 되어 그를 정식으로 後嗣로 삼아 就學시키려 하자, 太后는 그에 反對하면서 ‘兒尙幼 稍長 就學 未晚也’라 하였는데,⁽¹⁹⁰⁾ 이때에 成均直講 李崇仁에게 授書하여 이미 就學의 준비를 갖춘 다음이었다. 太后의 反對에 봉착한 恭愍王은 우선 知申事 權仲和에게 命하여 文臣들이 會同하여 辛旽의 이름을 改名토록 하여 王이 禍라고 確定지워 命名한 다음에,

仍召侍中 慶復興 密直提學 廉興邦 政堂文學 白文寶 議封禍 江寧府院大君⁽¹⁹¹⁾

이라 하여 禍를 江寧府院大君으로 封했던 것인데, 이에 뒤이어 師傅를 定한 事實은 이미 앞에 正史한 史料에서 살핀 바 있다. 요컨대, 禍를 정식으로 後嗣로 삼는 대신 우선 大君으로 封하고 師傅를 임명하여 就學시키게 했던 바, 白文寶는 禍를 大君에 封하는 決定에 王과 더불어 參與한 3인의 重臣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그 師傅에 임명된 사람이었던 것이다.⁽¹⁹²⁾

白文寶는 아마도 禍를 恭愍王의 後嗣로 定하는 데 贊同하는 立場이었으리라 생각된다. 禍를 大君으로 封하는 모임에 참여한 重臣 3인 가운데 白文寶만을 그 師傅로 삼은 것은 그가 禍를 後嗣로 삼으려 하는 恭愍王의 意中에 부합되는 人物인 때문이었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71

(187) 金哲揆, 「恭愍王」, 『韓國의 人間像』 1, 1965.

(188) 『高麗史』世家 43, 恭愍王 20년 7월 戊辰 및 『高麗史』列傳 46, 辛禍 1, 冒頭.

(189) 『高麗史』列傳 46, 辛禍 1, 冒頭.

(190) 『高麗史』列傳 2, 忠惠王 明德太后 洪氏傳.

(191) 『高麗史』列傳 46, 辛禍 1, 冒頭.

(192) 『高麗史節要』 29, 恭愍王 22년 7월條에,

賜辛旽奴名禍 封江寧府院大君 命政堂文學 白文寶 傳之

라 하여, 禍의 師傅로 白文寶만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3인의 師傅 가운데 年齡이나 地位로 보아 代表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밖의 師傅인 田祿生과 鄭樞 가운데 田祿生은 白文寶와 마찬가지로 整治都監의 整治官이었다(『高麗史』列傳 25, 田祿生傳).

세의 白文寶가 禰의 後嗣 指目과 就學을 반대하는 太后의 뜻에 거슬리면서까지 禰의 師傅가 되는 것은 禰를 後嗣로 是認하는 意志가 없이는 좀처럼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晩年の 白文寶는 異例의으로 致仕의 상태를 벗어나 現職 宰相의 위치에서⁽¹⁹³⁾, 그 出生부터 의문에 싸인 禰를 새로운 王位繼承者로 인정하면서 그 師傅가 되었던 셈이다.

白文寶의 再登場과 後嗣問題에의 介入은 高麗의 政治의 安定에 이바지하려는 그의 衷情때문이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신이 介入되곤 했던 恭愍王의 改革政治가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한 상태로 歸結되다가 끝내 後嗣問題로 王의 精神의 基調가 동요되어 政治의 破局이 예견되자, 白文寶는 그의 權威와 識見을 바탕으로 恭愍王의 편에 서서 禰를 後嗣로 삼을 수 있게 一助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온 여러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明白한 眞實을 알려줄 자료의 不足으로 推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白文寶는 恭愍王이 45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弑害당한지 3개월이 지난 同王 23년 12월에 72세를 一期로 세상을 떠나니⁽¹⁹⁴⁾, 그 죽음이 두 사람 사이의 긴밀했던 관계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그에게 忠簡이라는 諡號가 주어졌는데, 子孫은 嫡子는 없이 庶子들만이 있어서 그 家系를 계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⁹⁵⁾

V. 結 語

白文寶는 高麗가 元의 附馬國으로 그 政治的 干涉을 받아야 했던 時期에 中堅層 武臣家門의 後裔로 태어났으며, 일찌기 儒學을 受業하여 科擧를 통해 官路에 진출하였다. 그는 특히 白頭正을 비롯하여 權溥, 李齊賢과 같이 性理學의 受容 發展에 決定的 역할을 한 人物들을 師事했던 만큼, 性理學에 대한 理解가 깊고 異端의 배척에 철저하였다. 그와 交遊했던 사람들은 함께 儒學을 공부하고 登第했던 이들로써, 鄉吏家門의 後裔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들은 權門世族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白文寶와 政治的 利害關係를 함께 할 수 있었다.

白文寶는 入仕하면서 史官, 文翰官, 諫官으로 근무하여 最高의 諫官職인 右常侍에까지 이르는 동안, 날카로우면서도 온건한 자세를 취하면서 盡力하여 상당한 名望도 얻었지만, 어려운 局面에서 屈折도 겪었을 것이다. 이같은 白文寶는 忠穆王代에 元 皇帝의 忠용에 의해 弊政改革을 위하여 설치된 整治都監의 整治官으로 발탁되어 得意에 찬 改革活動을 벌일 수 있었다. 整

(193) 高麗後期에 致仕했던 人物이 다시 現職에 복귀하는 事例가 간간히 있었다. 『高麗史』 列傳 19, 洪奎傳 및 同 23, 李齊賢傳 참조.

그러나 白文寶가 정확히 언제 致仕의 상태에서 現職으로 복귀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그는 이 後嗣問題와 관련하여 기록에 政堂文學으로 나타나기 1개월 앞선 恭愍王 22年 6月의 일로서, '白文寶·權仲和取應舉試 金潛 宋文中權近 曹信 金震陽' (『高麗史』 選舉志 2, 科目 2, 制科)이라 하여 明의 制科에 응시할 후보자를 選取하고 있을 뿐, 그 무렵의 다른 관련 記事를 찾아볼 수 없다. 白文寶는 知貢舉나 同知貢舉 또는 國子監試의 試官이 되어 본 적이 없다.

(194) 『高麗史節要』 23, 恭愍王 23年 12月 및 「行狀」 참조.

(195) 『高麗史』 列傳 25, 白文寶傳에는 '無子'라 하였지만, 「行狀」에는 瑄(別將), 晉(判尹), 需(判官), 渙(散員), 恒(同正)의 五子와 後孫들이 나타나는 바, 『高麗史』 列傳의 記事는 嫡子가 없음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治都監은 당시 高麗의 심각한 政治的 社會的 矛盾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附元輩들을 究治하고, 反元의인 改革案을 發布하였다. 새로운 儒學者群의 影響力 增大에 힘입어 이같은 改革이 企圖되고, 그들의 識見과 氣概에 의해 改革活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反元의 性向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것은 白文寶 개인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다.

整治都監의 活動은 元의 介入으로 失敗하지만, 오래지 않아 整治都監의 改革을 主導했거나 支援한 새로운 儒學者 세력의 지지를 받은 恭愍王이 즉위하였다. 恭愍王代는 激動과 改革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 全時期를 통하여 白文寶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즉위초의 恭愍王의 第1次 改革政治는 李齊賢을 首相으로 등용한 가운데 王 자신의 意欲에 힘입어 조용하게 推進되었는데, 이때 白文寶는 典理判書, 書筵官으로 발탁되어 상당한 활약을 하였다. 일찌기 整治官으로서 얻은 名望과 經驗이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 후 恭愍王 5년의 第2次 改革政治는 反元自主의인 性格때문에 획기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白文寶의 역할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 國家의 事業으로 이루어지는 國史編纂에 그가 李齊賢, 李達衷과 더불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白文寶는 이 改革政治를 是認하고 受容하는 同參의 立場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恭愍王代 中葉에 이르러, 紅巾賊의 침입으로 開京이 함락당하면서부터 高麗는 커다란 政治的 危機를 맞이하였다. 白文寶는 당시 急變하는 情勢 속에서 慎重한 措置를 유도시키고 切實한 民生問題를 거론하면서 難局 收拾에 기여하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恭愍王 12년 4월경에 올렸으리라 여겨지는 上疏文이다. 그의 文集『淡庵集』에서 「斥佛疏」라 題名한 이 上疏文은 매우 前向의인 것으로서 檀君紀元說을 내세워 當代가 數千年마다 到來하는 一大 變革期임을 밝히면서, 高麗의 歷史的 傳統을 溫存시키기 위하여 儒敎的 政治理念에 立脚하여 광범위한 救民策을 講求할 것을 力說하였다. 이는 당시 당혹과 좌절에 빠져 있던 高麗의 君臣에게 커다란 勇氣를 주고, 나아가 方向을 제시한 뜻깊은 것이었던 바, 뒤이어 恭愍王 14년 辛旽의 등용을 통해 착수되는 恭愍王의 第3次 改革政治를 유발시키는데 중요한 구실을 했으리라 추측된다.

그 후 恭愍王代 末期에 이르러 白文寶는 限界性에 다다른 辛旽의 執權體制를 瓦解시키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恭愍王 生前에 그 後嗣問題에 介入하여, 禍가 大君으로 封해지는 決定에 同參하고, 그 師傅가 됨으로써 恭愍王의 意思대로 禍가 後嗣로서 어느 정도 立地를 마련하는 데 크게 助力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恭愍王代에 王 가까이에서 주로 改革을 중심으로 하여 政治問題에 깊이 介入한 白文寶는 恭愍王에 뒤이어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는 兩者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白文寶가 恭愍王代의 政治的 變革에 중요한 역할을 한 人物이며, 그를 통하여 恭愍王代의 改革政治는 前代의 整治都監의 改革活動과 繼起的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을 어느 정도 確認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白文寶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政治思想과 改革論에 대한 考察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